

경계에 선 학자: 용광로 지식을 구축했던 선비 사회학자 송복*

문상석**

[논문요약]

이 연구는 한학을 배움의 기본으로 삼고 현장에서 밸로 뛴 언론계 기자로 정치학을 전공했던 학자로 살아오며 경계에 서서 평생을 사회학자로 살아온 송복 교수의 학문 세계를 '우연성'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한학을 즐겼으며 정치학을 기본으로 하였던 언론인 출신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인 송복의 학문 세계를 그가 경험했던 현실 세계와 전혀 다른 학문에 터 하여 구성하는 지식사회학의 관점에서 다룬다. 한 학자 집안에서의 출생, 한학 친화적인 환경과 가정 교육, 서울살이의 대학 생활, 사상계에서의 경험, 군대의 합리적 사고와 현실성, <청맥>의 경험, 신문대학원에서 사회학을 접하고, 하와이대학으로의 유학과 영어 경험, 세익스피어와 고문진보를 비교하며 한학을 즐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에게 다양한 경험을 사회학으로 인도하는 우연히 접했던 사건들의 연속이었다. 사회과학에서 우연성(contingency)은 인과관계가 작동하기 어려운 장기간의 경로를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송복 교수의 사회학자로서 인생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사건의 경험은 우연히 연결되었지만, 각 사건 안에는 인간 송복이 투자한 피와 땀이 있었다.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한학, 영어, 기자로서의 경력, 정치학과 학문 추구 방식 등은 그가 바친 노력의 산물이었고 이런 각 사건을 우연이라는 경로 설명을 통해서 다룰 수 있다.

사회학을 경험하고 필력을 인정받아 언론계에 빌을 디뎠던 송복은 사

* 이 글은 『연세대학교사회학과 40년 1972-2012』의 송복 교수회고록 (대답자 문상석)을 수정하여 제출한 논문임. 송복과의 대화체를 기본으로 하여 가급적 송복 교수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고자 하였음.

** 저자: 문상석(강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회학과는 아직은 거리가 있었다. 그 사이 언론계에서 현장을 경험하던 그에게 <청맥> 장간과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그에게 사회학이라는 학문의 세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만들었다. 한국 사회의 근대화 및 정치 변동의 소용돌이는 다양한 학문 세계를 경험했던 송복을 사회학자로서 출발하도록 만들었다. 우연히 접한 연세대학교와의 인연은 그를 다양한 경험을 하였고 다른 교수들과 다른 경로를 택했던 인생이지만 학자 이외의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에게는 귀중한 선물이었다. 송복 교수는 학자로서 자유로움을 연세대학교에서 획득할 수 있었다. 학교 보직을 하지 않아 시간의 주인으로서 살았으며, 압력 없이 원하는 글을 쓰므로써 글쓰기의 주인으로 살았고, 연구비 마련을 위해서 연구하지 않아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았다. 송복 교수는 사회구조에 의해 압력을 받지 않고 실체를 찾아가는 연구를 할 수 있었으며 그로 인해 그가 한국 사회를 불평등, 계급, 조직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동양 사상에 뿌리를 내리고, 다양한 학문을 현장에서 경험하고 익히다가 사회학을 만나 지적 용광로 안에서 경험하고 익히고 배운 학문을 녹여 하나가 된 지식을 통해 한국 사회의 정수를 찾고자 했던 사회학자 송복 교수의 학문의 길을 뿌리부터 출기까지 다루는 연구이다.

주제어: 우연성, 정치학, 사회학, 언론, 사회과학 방법론, 용광로, 정수

“조직의 연구는 한국 사회의 실체를 연구하는 것이고, 그 실체 중에서도 골수가 되는 부분, 곧 정수(essence)를 연구하는 것이다.” (송복, 1991)

I. 들어가며

정치학을 전공하고 언론계에서 활동했던 송복 교수는 1937년 김해군 진례면 담안리에서 태어났다. 진해에서 부산으로 고등학교에 가서 수재 소리를 듣다가 사회학과 흥미가 있었으나 사회주의와 사회학을 혼동했던 황해도 옹진반도 출신의 선생님이 사회학은 사회주의 이념을 가르치는 것이니 배우지 말라고 조언하여 정치학을 택하게 되었다. 사회주의와 사회학을 혼동하던 시기에 혼했던 일이고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후에 다시 만난 사회학과의 인연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송복 교수는 1956년에 서울대 문리과학대학 정치학과에 입학하고 1960년에 졸업을 하였다. 서울 문리대학의 특성으로 정치학 수업들에 실망했던 와중에 전공뿐 아니라 다양한 학문을 배울 수 있도록 사회과학 교과목을 열었던 당시 문리대학의 독특한 수업 체계 덕분에 사회학과 수업을 많이 들을 수 있었다.

송복 교수는 사회학 수업을 듣고 매우 특이하고 재밌는 학문으로 인식했다. 대학 재학 중에 썼던 학생 논문으로 졸업 후 사상계에서 일하게 되었다. 당시 사상계에서 일하면서 많은 사람을 접할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국방대학교의 장교들을 만나고부터 소위 말하는 실용적이고 도구적 합리성을 가진 실천가였던 군인들의 사고방식에 관심을 가게 되었다고 한다. 이때 군인들이 가지고 있던 실용적인 합리성이 일생의 학문을 하는데 밑바탕이 되었고 수업 중에서도 늘 군인의 실천적이고 도구적인 합리성을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1년간의 사상계에서 기자로 일한 이후 군에 입대하고 3년의 군대

생활을 마친 이후에 대학 때부터 시작했었던 글쓰기를 하려고 시작한 「청맥」 잡지로 인해서 1968년, 인생의 매우 특이한 경험이었던 중앙정보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후 1968년부터 1970년 서울대학교에서 신문대학원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우연히 사회학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1971년 하와이로 사회학을 공부하러 가게 된다. 사회학을 공부하고 귀국한 후 부산고등학교 시절 같은 반이었던 전병재 교수로부터 연락받고 연세대에서 교수의 길을 택하게 된다. 1977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에 입학하게 될 때도 사회학이 아닌 정치학을 택하였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의 전임제 대학원생 규정 때문에 일어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80년까지 3년 반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정년퇴직하였다. 한학에 뿌리를 두고 분석하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했던 송복 교수는 정치, 사회, 언론, 학계 등에서 경계에 서 있었지만 늘 학자로서 있었다.

이후 학문과 글쓰기로 보직도 없이 그리고 외부의 활동도 없이 오로지 글과 강연 그리고 강의하며 학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은퇴 후에도 글쓰기와 강연, 전통 대한 연구로 학자의 길을 계속 가고 있다. 송복 교수에 대해 아마도 수업을 들었던 그의 학생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적인 경험과 그에 따른 인식이 있다. 강의실에 출석부만 들고 오시고 시계를 풀어서 책상 위에 놓고 분필을 잡고 판서하면서 노트를 보지 않고 강의를 시작하는 달변(達辯)의 학자였으며 풍부한 역사적 지식을 바탕으로 쉽게 설명해주던 교수님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나오는 한자어의 한자가 무엇인지를 묻고, 수업 내용을 설명할 때 역사적 사실과 연계하는 질문을 많이 하였다는 것이다. 항상 기억할 것, 즉 공부의 내용에만 기억력이 좋고 그 외에 것들에게는 그다지 관심도 없으셨던 분으로 기억되는 점이 두 번째 공통적인 경험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마도 직설적이고 화끈하게 어떤 현상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과 더불어 문·사·철을 부단히도 강조했다는 것이다.

유창하고 맑은 목소리의 강의와 직설화법의 글 그리고 한학을 일상에서 즐길 수 있었던 배경에는 송복 교수의 어린 시절부터 꾸준하게 형성되었던 문화적 자본의 덕이 있었다. 가을과 겨울의 경계에서 강한 생명력을 보이는 들국화처럼 특정한 분야에 얹매이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배경과 매 순간 자신이 담고 있는 분야에서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한 결과는 그의 학문 세계를 용광로로 만들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완성된 학문의 기질을 사실 사회학을 가장 늦게 그리고 짧게 배웠으나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사실을 찾아내고 도리어 더 사회학의 본질에 가깝게 한국 사회에 대한 분석의 칼을 내밀 수 있었다. 경계라는 공간에는 무엇 하나 명확한 것이 없기에, 송복 교수의 학문 세계는 사회과학 분과 학문의 한두 시각으로 담아내기 어렵다. 그렇지만 그의 학문은 본질과 맞닿은 사회가 가진 모습을 통찰력 있게 그려낼 수 있었다. 이글은 송복 교수의 인생 굴곡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언론과 정치의 경계에 서서 오랫동안 한국 사회를 연구해 온 한 사회학자의 길과 그 길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 더 초점이 있다. 그의 최근 행정이나 민감한 사회적 소동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송복 교수라는 한 사람의 학자적 삶에 더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글은 크게 3부분으로 나뉜다. 지식사회학의 관점에서 격변의 해방 이후와 한국전쟁 시기를 경험하며 전후 대학에 들어갔다가 60년 4월 혁명과 군사 정부 아래서의 군생활, 이후 근대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언론계에 종사하며 대학에 들어갔던 경험들은 어릴적 한학의 경험과 맞물리면서 다층적인 송복의 경계를 더욱 확장하게 해주었다. 그런 의미에서 세 부분의 구성은 송복의 학문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는 성장기에 관한 내용이다. 개인적인 회고 부분으로 초등, 중등, 고등학교 시기 학자의 길을 가게 된 환경과 경험을 다룬다. 성장기의 두 번째는 단연코 대학 시절이며 사회

학과의 인연을 다룬다. 대학을 졸업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와중에 서도 사회학과의 다른 인연의 시작을 포함한다. 이것을 성장기에 포함한 것은 사회학자로서의 눈을 트이게 한 배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연세대학교와 관련하여 있었던 학문의 길을 다룬다. 마지막으로는 사회학자로서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통찰력을 높여 한국 사회학이 앞으로 잊지 말아야 할 역할들에 대해서 질문한다. 이를 통해 늘 실체의 '정수'를 찾아 제시하고자 했던 송복 교수의 학문 세계를 들여다볼 것이다.

II. 학자적 삶의 토양 형성기

1. 송복 지식 체계의 토대

송복 교수의 학문 체질의 시작은 어릴 적 기업과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 문·사·철을 중요시했던 것은 어릴 적 한학자였던 조부의 영향에서 시작되었고 대학 이전 학교 선생님들이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송복 교수는 스스로 말하기를 시골에서 자랐다. 수업 시간에 항상 문·사·철과 한문 공부를 강조한 것은 그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할아버지가 진사였고 구한말에 그의 증조부도 진사였다. 송복의 어머니께서도 한학을 했기에 어머니도 아이들에게 한학을 가르쳤다. 심지어 송복의 어머니는 해방 이후에 한글을 가르치기까지 했다. 할아버지가 진사였기 때문에 당시 송복의 집에는 서당이 있었다. 할아버지 사랑방에서 사람들이 한문을 배우고 그랬는데 송복은 어렸기 때문에 정식으로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앉아서 공부했다고 한다. 당시 나이가 다섯에서 여섯 살의 나이였다. 송복이 7세가 되던 해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집 안에 있었던 서당도 없어졌다. 이에 송복은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해가 1944년이라고 한다.

초등학교(당시 국민학교)에 들어가서 일본 글과 일본 말을 익혔다. 일본 사람들은 한문을 많이 사용했는데 그는 어릴 때부터 한문을 익혔기에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다른 아이들보다 빨랐다. 어릴 때 배운 것이 평생을 간다고 송복은 말하곤 했다. 한자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던 송복이지만 한글이란 것은 있는 줄도 몰랐다고 한다. 한글을 쓰면 일본 경찰이나 선생님들에게 혼났지만, 송복의 경우는 한문을 잘해서 남들보다 빨리 일본어를 터득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해방을 맞이하였는데 당시 송복의 어머니께서 “이제 한글을 배우자”고 하셨다고 한다. 그런데 당시 한글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조선 글’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한글이란 지금처럼 보편적으로 불리지 않았기에, 일본이 침탈하기 이전 조선의 말이었기에 조선글이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송복은 3형제가 있었고 송복의 어머니께서 직접 한글을 삼 형제에게 가르쳐주셨다. 송복은 ‘이렇게 좋은 글이 있나?’ 하고 생각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조합해서 원하는 글자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부터 어머니께서 직접 한글을 가르쳐주셨는데 그때는 “가가거겨 고교구규”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가이갸 거이겨 고이교 구이규” 이렇게 가르쳤다. 기억, 니은, 디든, 리을,히웃”까지 하면서 가에다가 기억하면 각, 니은 하면 간, 이렇게 가르쳐주셔서 내 기억이 그로부터 한글을 깨쳤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언어를 나이가 어릴수록 빨리 깨쳤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6학년, 4학년이던 형님들이 한글을 송복 교수보다 조금 늦게 깨쳤다고 이야기했다. 당시 학생들은 선생님이 한글로 부르면 잘 받아쓰질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송복의 큰 형님이 학교 시험 치는 날에는 자신을 데리고 갔다. 형 옆에서 그것을 받아 적고 형은 동생 송복의 답안을 받아적어서 시험도 잘 보았다고 한다.

해방 직후 한글을 모르는 세대가 정말 있었던 것이고 일제의 한글 말살 정책이 어느 정도 효력이 있었다. 일제 강점기 일본어가 모국어고 조선글은 조선에서 살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었기에 어

린 학생들은 당연히 일본 글과 말이 모국어가 될 수밖에 없었다.¹⁾ 송복은 어릴 적 한자와 한문을 따라서 읊었던 것이 한글을 다른 사람보다 특히 형들보다도 더 빨리 깨칠 수 있었던 배경이 된다고 한다. 당시 한글을 제외하고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송복은 다음과 같이 응답한다.

송복: 학교에 가면 그때는 사범학교 나온 선생도 드물고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한 사람이 우리를 가르쳤는데 이분들도 한글을 잘 몰랐어. 그 당시에 학교 교과서하고 요새 보면 유치하기 한량없는 그런 잡지들이 왔는데 선생이 나보고 그걸 읽으라고 그랬어. 내가 읽으면 학생들이 같이 따라 읽고 그 당시에는 그런 식이었지. 해방되고 나서 우리 동네 근처에 분교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한 교실에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한 반에 들어갔어. 한 선생이 1학년부터 3학년을 같이 가르치는데 여기서 공부를 좀 못하는 학생한테 “니, 여기 앉아” 하면 3학년이 2학년이 되어버려, 그리고 2학년이 1학년이 되어버리고 그런 학교에서 졸업생이 몇 명이나 되겠어? 그 졸업생 중에서 세월이 지나 대학에 가는 데, 세 사람이 서울대에 가는 거야, 그때는 연대, 고대는 지방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러니까. 요새하고는 그야말로 참 격세지감이 세상을 뛰어넘는 그런 시절이었지.

근데 그 당시 농촌에 책이 뭐가 있느냐 하면 주로 소설과 역사책이었어. 집에 있는 책이란 책은 다 읽었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소설이고 그다음에 역사인데 우리 역사에서부터 제일 또 많이 읽던

1) 김병길(2021)의 『우리 소설의 비급』에는 소설가 장석주에 대한 소개 글이 나온다. 장석주의 소설에서는 경상도를 배경으로 초등학교 선생님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그의 시각으로 바라본 일본어를 큰 소리로 외치면서 배우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모습이 그려진다. 김병길은 일본어를 ‘모국어’로 조선어를 부수적인 언어로 생각하는 학생들의 모습으로 분석한다.

게 삼국지를 많이 읽었어. 역사에 대해서는 읽을 게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자연히 동서의 역사에 대해서는 뭐든지 다 알 수밖에 없었지. 그리고 어릴 때 읽은 역사 기록은 제일 먼저 연도부터 남는 거야. 그때는 천구백몇년 이래 안 하고 사천몇 년 이렇게 단기로 썼으니까. 지금도 어렸을 때 단기로 외운 것이 남아 있지. 나이 들어 외운 것은 잘 남지 않아. 서구의 그리스-로마부터 시작해서 신성로마제국을 거쳐서 영국의 역사,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백년 전쟁 그리고 어떻게 비스마르크가 독일을 통일하는가? 그리고 미국이 어떻게 독립하는가? 그런 것이 연도별로 머릿속에 다 남아서, 세계사가 머릿 속에 하나의 지도로 그려지는 거야. 그렇게 역사를 알게 되니까 과거를 들 분석할 수 있게 되고, 과거를 분석하게 되니까. 현재를 진단할 수 있게 되고 현재를 진단하니까 미래를 자꾸 조망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아, 이거 공부는 역사가 기본이구나 깨닫게 되더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 어휘를 쓰느냐?” 여기에 달렸는데, 그 어휘라는 거는 소설하고 시가 아주 기본적인 거라고, 그러니까 많은 소설을 읽고 시를 외웠지, 그 당시에 시를 외우는 것은 기본이었어, 반드시 시를 외워야돼.

송복 교수가 그렇게 강조한 것이 초등학교(당시 초등학교) 시절에 자신이 경험한 것을 토대로 그렸다는 점이 놀랍다. 무엇보다 지도를 그리고 세계를 바라볼 수 있었다는 점은 사회를 큰 틀에서 거시적으로 문명사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이고 문명사를 이해하면서 사학을 이해했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어휘를 시와 소설로부터 배웠다. 그의 성인이 된 이후 행적이 언론계에서 잘 활용되었고 사회학이라는 학문에서 꽂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이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한 훈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전혀 새로운 사회와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이 지배하던 초등학교 시기를 지나 중학교에 입학하고는 한국 사회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

생하였는데 바로 한국전쟁이었다. 송복은 중학교 시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송복: 중학교에 들어가자마자 6·25가 났어. 그 당시 해방이 되고 나서 미국식 학제를 해야 된다고, 9월 학기제를 했다고, 미국처럼. 그랬는데 해보니까 맞지 않아서 다시 4월 학기제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다 보니까 6월에 학기 시작이 됐다고, 6월 10일에 우리가 중학교 입학식을 했어. 보름 만에 6·25가 일어났단 말이야. 근데 다른 지역 사람들이 6·25가 일어나니까 피난을 다 오게 됐는데 내가 살던 그 지역이 인민군 비점령 지구가 됐어. 그게 그 당시 전국에 16분지 1이라고 했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지. 서울의 학생들이 피난을 왔는데 우리 지역으로 모두 피난을 왔어. 피난 온 학생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고 경기중학, 서울중학, 그때 서울에서 최고라 하는 사대부중, 경복중학 등등, 이런 중에 잘사는 애들이 왔어. 우리나라 교육열이 높아서 그런지 그 애들하고 전쟁 중에도 공부하게 됐어. 그런데 그때 내가 느낀 것이 서울 애들이 공부를 참 못한다는 거였어.

애들이 공부를 못할 리가 없는데 왜 저래 아는 것이 적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그게 촌에서 자란 내가 받은 특별한 교육 혜택이야. 아까 얘기한 대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가서도 문학이라는 것, 시와 소설을 읽는 것, 이것이 생활화되었고 역사책을 읽는 것이 생활화되었고 철학은 뭐였느냐 하면 그때는 철학이 뭔지 모르니까 전기부(Biography)를 읽었어. 나폴레옹, 비スマ르크, 율곡, 퇴계, 을지문덕, 이런 게 많이 있었거든. 옛날 사람들이 철학의 의미를 뭐라 했냐면 정야(正也)라, 명야(明也)라, 지야(知也)라, 사야(思也)라고 했어, 바르다, 밝게, 슬기롭게, 그리고 생각을 깊이 해서 사는 사람이 쓴 책은 다 철학책이다. 그게 바로 전기물이다. 근데 이 전기물을 많이 읽으면 사람들이 철학적 사고를 한다. 철학적 사고라는 것

이 무엇이냐. 철학적 사고라는 것은 자기 입장에서 벗어나서, 자기 위치를 떠나서 생각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객관적 사고지.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 주관적으로 사고할 것이고 구부러진 현실을 보는 것이다, 왜곡된 현실을 보는 것이다. 내 위치에서 떠나서 보는 것 같으면 그건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한 사람은 다 객관적으로 사람을 평하고 객관적으로 그 당시 현실을 평가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철학적이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읽는 책이란 것이 주로 그런 책이었어. 그 당시 사정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은 다 읽었는데 또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를 가르친 선생은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졸업자가 가르쳤고, 중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졸업자가 가르쳤어. 그 선생들 실력이 우리 학생들 실력보다 하나도 나을 것이 없어! 예컨대 6·25 때 그 유명한 철의 삼각지대가 있었어. 세 지역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6·25 때 제일 치열한 전투였어. 그런데 사회생활 시간에 어느 학생이 사회생활 선생을 보고 “선생님, 요새 철의 삼각지대란 말을 자꾸 쓰는데 철의 삼각지대가 뭐니까?” 아래 물으니까 선생이 “철의 삼각지대, 그거 아는 사람 손들어 봐라.” 어느 학생이 “철이 나는 세 지역이 있는데, 그 세 지역을 철의 삼각지대라 합니다.” “그래, 그게 맞다.” 그랬어. 선생님 수준이 그랬어. 그래서 내가 “선생님, 그게 아니고 지금 전쟁에서 전투가 한창 벌어지는 세 지역이 있는데 그걸 철의 삼각지대라 합니다. 강원도 동부전선 전투를 하고 있는데 그겁니다.” 이러니까 “에이,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철의 삼각지대라 하느냐, 먼저 말한 애가 말이 맞다.” 그랬어. 그리고 그 뒤에 선생님이 조사해보니까 전투지역임을 알고 “어제 송복이 한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 당시 선생 수준이 그런 시사 문제도 잘 모르는 수준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집에서 공부하는 수밖에 없었지.

그가 언제나 시사 상식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여러 개의 신문을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 배경에는 한국전쟁 시기 경험이 컸다고 한다. 그래서 늘 새로운 뉴스를 알려주는 신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신문에서 사람에게서 보고 듣는 상식을 배우는 데 익숙해졌고 자신만이 그것을 찾아가는 습관이 생기게 된 것이었다.

송복: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활자화된 것이 수가 너무 적으니까, 지방에 나오는 그런 신문도 열심히 읽은 거야 전체적으로 양이 적으니까. 뭐 그런 책 읽어봐야 한달도 안 돼서 다 없어지고 그야말로 책의 양이 그 당시에 그래, 절량농가에 절량 양식 떨어지듯이 떨어진다는 말이 있었거든. 가난한 농가의 양식이라는 게 조금 갖다 놓으면 없어지고, 조금 갖다 놓으면 없어지고 그것처럼 우리가 그 당시에 보던 책의 양이 절량농가의 양식처럼 읽어버리면 빨리 줄어들어 버리는 것이었으니까. 자연히 활자화된 거를 친하게 그리고 열심히 접할 수밖에 없었지. 그러다가 상식이 늘게 된 것이지. 중학교 3년은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데, 요새처럼 뭐 과외를 할 수도 없고 학원이라는 게 있을 수도 없고. 다 자기가 알아서 하는 송부지. 그런데 중학교 가서도 뭘 했냐 하면 위문 문이라는 걸 매일 쓰게 됐다고. 거의 매일 전방의 용사들에게 위문 문을 쓰는 게 학생들 의무 중의 하나였어.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나서 2953년에 끝이 났는데 그 전쟁 기간에 한 달이면 한 보름은 위문 문을 써서 학교에서 안 쓰면 집에서 써서 가져갔어. 그 위문 문을 쓰는데 내가 선수였어. 내가 위문 문을 쓰면 선생들이 “위문 문은 이렇게 써야 된다.”고 늘 앞에 전시하고 쓰랬어. 그것도 작문의 하나인데 작문하는 원칙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간다(看多), 주다(註多), 상량다(商量多). 유명한 구양수의 얘긴데 많이 읽고 많이 짓고 많이 생각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 다닐 때는 책도 부실한 생태고, 선생도 오늘날 선생들처럼 가르치는 수준이 높은 게 아니니까 스스로 알아서

하는 공부였어. 결점이 있지. 그러니까 자왈 “사이불학즉태(學而不思則罔,思而不學則殆)”, 논어에 나오는 유명한 말인데, “생각하되 배움이 없으면 위태로워진다.” 이 뜻이지. 학교 선생님에게 안 배우면 독선이 돼서 사상이 상당히 위태로워. 선생한테 배운 양이 적으니까 그게 독선이 되어버려 자기가 제일 옳은 줄로 알지. 배우되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어두워진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두워지고 자기 독학을 하게 되면 위태로워진다. 그래서 『논어(論語)』에 찾아보면 첫 시작이 ‘학이시습(學而時習)’이야. 배우고 늘 익힌다. 중학교 다닐 때는 선생이 부실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지. 시골이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있을 리가 없지. 그러니까 자연히 스스로 알아서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야.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 좋지 않은 점도 생길 수 있는 거고.”

당시에 틀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호기심이 많았던 어린 송복이 자신의 방식대로 찾아 공부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었다. 학자로서 자신이 배움을 찾아 자신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중학교의 경험이 컸다. 이런 경험은 당시 중고등학교가 함께 운영되던 시기로 맞물리면서 고등학교의 경험으로 이어졌다. 특히 한국전쟁 시기 피난 온 서울 학생들과 함께 공부했던 경험은 공부를 근본적으로 해야 함을 알게 된 계기였고 서울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었다. 한자 문화권인 한국에서 한자의 조합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다양한 요인의 조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학문의 깊이를 갖게 해주는 것이었다. 한자를 배웠던 배경이 배움이란 것을 크게 만들 수 있었던 경험으로 작동하여 서울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들 공부 방식보다 더 나았음을 그의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다. 그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송복: 내가 중학교 들어갈 때는 중·고등이 한 개로 되어 있었어.

1학년 들어가면 6학년까지 있었어. 요새처럼 중간에 나뉘지지 않았지. 근데 내가 들어갈 때 우리 지방에 유일하게 6년제 학교로 김해 농업중학교가 있었어. 김해가 넓은 대평야 지대니까 일본 사람들이 세운 농업학교가 아주 유명했지. 농업중학교에 들어갔는데 6·25를 거치면서 학제가 바뀌었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분리하는 학제였지. 내가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가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따로 만들어져서 내가 중학교 1회 졸업생이 됐어. 처음 만들어지니까 1회 졸업생이 돼서, 거기서 공부하게 됐지. 근데 중학 3학년 올라가니까, 아까 말한 대로 6·25때 서울 애들이 내려와서 공부하면서 서울 바람이 불었어. 공부는 서울 가서 해야 한다고 [사람들이 믿었던] 거지. 내가 보니까 서울에서 온 애들이 공부를 아주 못하던데 왜 서울 가서 공부해야되나?, 이런 생각도 했지만은 역시 공부는 서울 가서 해야되겠다, 생각하고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부산으로 고등학교에 갔어, 그때 인제 김해 농업고등학교인데 그건 인제 촌 애들이 가는 거고 시골에서 공부를 좀 잘하는 애들은 인문계 고등학교로 갔어, 그 때 부산고등이 경남에서 제일 먼저 생긴 인문계 고등학교였어. 그 고등학교에 시골의 수재들, 부산 도시에 있는 수재들이 다 몰렸어. 거기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학생들하고 경쟁하면서 공부하게 됐는데 그때 가르친 선생님들이 비로소 대학을 나왔어. 중학교 땐 중학교 졸업자가 가르쳤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대학 졸업자가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선생 수준이 완전히 다르지. 거기서 공부하는데 나하고 같은 반 학생인데 내 선생이 하나 있었어. 부산에서 중학을 나왔는데 애 집에 가니까 도스토예프스키, 톨스토이, 찰스 디킨스, 서머셋 모음, 로맹 롤랑, 그리고 토마스 하디의 소설책을 자기 서가에 딱 꽂아 놨더라고. 고등학교 1학년이 중학교 3학년 영어 배워 가지고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그거 읽는다는 생각은 해본 일도 없고 영어는 저런 책을 읽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본 일도 없는데 그걸 갖다 놓고 읽더라고. 그때 딱 깨달은 게 아 지금까지 영어 배운 거는 그

냥 배운 게 아니고 저런 명작을 읽으려고 배웠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근데 내 중학교 3학년 실력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진짜 영어 공부를 하게 됐지.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영어 소설을 읽는 훈련을 쌓았는데 바로 그 친구가 내 선생이나 다름없었어.

2. 문·사·철로 시작한 대학 생활

서울대 정치학과에 입학하게 된 계기는 사실 사회학과 사회주의를 혼동한 선생님으로 인한 것이었다. 송복은 고등학교에서 경험한 입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송복: 고등학교라는 게 지금처럼 학원이나 선생님이 전담해서 시험 기술을 익히는 그런 공부는 안 시켰지만,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했지, 특히 서울대, 연대, 고대 그 세 대학에 학생들이 집중했으니까. 지금만큼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셨다고 볼 수 있지. 그래서 고등학교 1, 2학년까지는 자기 즐기는 공부를 하다가 3학년 가서는 대학입학시험 공부했어. 그때도 제일 중요한 것은 수학하고, 영어인데 영어는 문장 익히는 거로 했다고. 대학입학시험도 큰 문장 갖다 놓고 번역하는 시험이었어. 일본식 전통인데 일본에서 칼 막스의 『공산당선언』을 갖다 놓고 번역을 시키는 것이 입학시험에 나오더라 하는 걸 들었는데, 그 당시는 우리도 그걸 했지. 근데 그때 고등학교에 경상남도 촌 수재들이 다 모여가지고 공부했지. 그 때는 각 도마다 명문 고등학교가 있었어. 서울에는 경기, 서울, 경북이 명문인데 경기가 처음에는 압도적이었지. 대전 오면 대전고등학교, 광주 가면 광주일고, 경북 가면 경북고 등 근데 경남, 부산에 오면 경남고등학교, 부산고등학교 두 개가 있었어. 둘 다 명문이었는데 역사는 경남고등학교가 깊지만, 인문계 고등학교로는 부산고등학

교가 먼저 만들어져 부산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왔지. 고등학교 3학년 때 모두 좋은 대학에 갈 애들이 모여서 공부하는데 내가 공부를 잘했어. 대학은 어디 시험을 쳐도 괜찮다, 톱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다고. 한 번 연대 들어와서 고등학교 성적을 떼야 하는 무슨 일이 있었어. 고등학교 성적을 떼니가 내 고등학교 평균이 96이더라고. 그 정도로 공부를 잘했어.

대학에 가야 하는데, 우리 집에서는 법과대학 가서 검사나 판사되라 그랬어. 그게 촌사람들의 대망이었지. 나는 그거 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고 문리과대학을 가서 학문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너희들은 지금 문리과대학을 잘 모를 거야. 명문대학은 전부 문리과대학이라고. 문리과대학은 문과, 이과 기초 학문을 하는 데거든. 서울대학은 그 당시에는 일제 강점기 전통이 있어서, 동경대가 그렇게 하듯이 문리과대학이 중심 대학이었지. 그래서 학생들도 문리과대학에 모여서 서울대학 총 1등 하면 문리과대학에서 나오고 철학과에서 1등이 여러 번 나오고. 요새는 꿈도 못 꿀 일이지. 그 대학에 가려고 문리과대학을 갖다 놓고 보니까 사회학과가 제일 좋더라고. 영문과, 국문과 이런 데보다도 사회학과가 참 좋은데 사회학과란 말은 처음 들었어.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송영각이라는 담임 선생이 있었는데 서울대학교 사학과를 나왔어. 담임 선생님에게 “저는 사회학과 가고 싶은데 사회학은 뭐하는 학문입니까?” 그래 물으니까 “무슨 학문이다.” 말도 안 하고, 한 마디로 “거기 가지 마!” 아래, “왜 가지 말라고 합니까?” 하니까 설명도 안 해주시고 “에이 가지 마! 가지 마!” 무조건 가지 말라고만 했지.

송복의 송영각 고등학교 선생님이 당시 그렇게 사회주의에 격하게 반응했던 이유는 그 선생님이 황해도 옹진의 대지주 아들이었고 대지주 아들이었기에 38도선 이남에 속하였었다. 일제 강점기에는 경성제국대학 예과에 들어갈 수 있었으나 당시 경성제국대학에는

사회학과가 없었고 서울대학 문리대학에도 사회학은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사회학을 잘 모르고 사회학을 전공하는 사람에게서 개인적으로 사회주의적이라고 느끼고 제자인 송복에게 가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송복 교수는 회고한다. 대지주의 아들이었던 선생님은 사회주의자에 대한 감정이 있었고 '사회'라는 단어만 들어가도 거부 반응을 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사회학을 먼저 선택하지 않은 것은 당시 선생님이 겪었던 필연이 원인이었으나 송복에게는 정치학과를 선택하게 된 우연이었다. 우연은 인과관계에 따라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계속 결과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채오병, 2009).

서울대 정치과에 입학하게 된 계기도 우연이었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 송복은 선생님에게 사회학과가 아니면 서울대에서 경쟁이 가 장 센 과는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랬더니 정치과라고 답했다고 한다. 송복 교수에 따르면 당시 선생님은 "거기 넣어 볼까요?"라는 송복의 물음에 "거기 넣어, 거기 넣으면 괜찮아."라고 답했다고 한다. 정치학을 하면서도 늘 다른 학문인 사회학을 동경하게 되었다고 한다.

송복: 거기 가서 한 학기 딱 지내보니까 정치학이 할 만한 거 하나도 없구나라고 생각했어. 근데 가서 강의 들으니까, 사회학과 강의가 좋더라고. 문리과대학이란 게 월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강의 시간이 꽉 짜여 있어서 큰 종이 하나에 나온다고. 거기서 내 맘대로 찍으면 강의 들을 수 있고 거의 안 겹쳐, 그때 160학점을 따는데 자기 전공학점을 50학점 이하, 내가 정치과면 정치학 50학점 이하만 따면 돼. 그게 45학점인가 그랬을 거야. 그럼 110학점 이하는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듣는 거야. 그게 아주 보통 강의들이 아니라고. 그것 때문에 4년만 하는 게 아니고 6년 하는 애들도 있어. 돌아다니면서 강의 듣느라고. 그래서

사회학 강의, 역사 강의, 문학 강의, 철학 강의를 대학 다닐 때 많이 들었다고. 그게 내 평생에 가장 큰 양식이 됐지.

평생에 문·사·철을 이야기한 배경에는 스스로 공부하던 구조적
열린 공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송복 교수는 자신이 어렸을 적에
배웠던 한자와 연결된 상식 그리고 학교에 있던 서적을 찾아서 호
기심을 충족하던 것이 대학에서의 구조가 자율적으로 자신이 배우
고 싶은 학문을 배울 수 있는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도록 만들어져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대학에서 학문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
배경에는 지금 대학생들이 하지 못하는 취업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있다. 이에 대해서 송복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금보다 일자리 사정이 좋지 않았던 50년대였지만 대학생들은 취
업 걱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 대학 다닐 때는 취직 걱정이란 걸 해본 적이 없어. 졸업하면
갈 데도 없었는데 왜 그걸 안 했는지. 그리고 취직 걱정하는 사람들은
고시 공부했어. 적은 수가 고시공부하고 국무총리 고건이 같은. 어제도
같이 술 한 잔 하고, 점심 먹고 했지만. 다 공시 공부해서 갔지. 정치
과에서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다 고시 합격 해 가지고 관료가 됐지.
고건이 같은 경우는 40대에 장관도 하고 그랬는데 나는 그 생각 없이
중앙도서관에 가면 책을 밖에서 보고 “저 책, 저 책 주시오.” 했어. 그
당시 서울대에 100만 권이 있고 했어. 아, 내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저
책은 다 읽고 나간다. 그렇게 해서 도서관에 앉아서 읽는데, 당시에는
그야말로 의자가 찌그러진다고 할 정도로 공부하는 학생이 참 많았어.
그게 서울대 문리과대학이었어. 그게 우리 대학 생활이었지. 대학 생활
은 오로지 문학과 역사학과 철학을 공부하는 4년이었지.

판에다 소설 10개를 썼는데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본 소설을 10개 쓰더라고, “이게 전부 합치면 1만 페이지지다. 대학 1학년 때 이 1만 페이지지를 다 읽어야 문리(文理)라는 게 트인다.” 그러더라고. 요새 애들은 문리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글의 이치, 문리가 뭐냐 하면 우리말은 읽으면 읽는 순간 언더스탠딩이 되거든. 근데 영어는 그 당시에 우리가 문장을 읽으면 우리말 읽듯이 읽는 순간 언더스탠딩이 되는 걸 문리가 트인다고 그래. 그러면서 1만 페이지지를 읽어야 문리가 트인다고 그래. 그러면서 적은 소설이, 내가 너희들 칠판에도 적어주었는지 모르겠는데 말은 해주었지. 그게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의 형제』, 『죄와 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등 러시아 작품을 많이 읽었다고. 왜냐하면 러시아 작품이 어휘가 풍부하고 외국어를 영어로 번역한 게 외국 사람들이 읽기 좋다고.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부활』, 그것만 해도 러시아 작품이 여섯 개거든, 트루게네프의 유명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대위의 딸』 그럼 8개 아냐 그리고 찰스 디킨스의 『데이비드 코퍼필드』라는 자기 자전적 소설이 있어. 하디의 『테스』가 있지. 그리고 프로베르의 『보바르 부인』이 있고, 스탑달의 『적과 흙』 등 여러 가지 적어 가지고 거기서 10권만 읽어라. 이게 이제 만 페이지다. 근데 그거를 대학 1학년 동안에 도서관에 앉아서 늘 읽는 훈련을 쌓았는데 나는 아까 말한 고등학교 때 그 친구가 가르쳐줘서 그때부터 읽었다고. 그 학생은 진짜 영어를 잘 해서 서울대 영문과를 갔고, 영문과서 평생 영문학 교수를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내 교육이라는 것은 고등학교에 가서 비로서 현대식 교육을 받게 되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였던 송복 교수는 말하기와 듣기에서보다 읽기와 쓰기에서 다른 이들보다 빨리 영어를 터득할 수 있었다. 특히 빨리 영어의 문맥을 파악할 수 있었던 역량은 그가 신문사 국제부 기자를 하는데 요긴하게 활용되었다.

송복: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문사 기자를 했는데 요새 말하면 국제부 기자를 했다고, 당시에는 외신부라고 했어. “어렸을 때 교육이 일생을 가더라” 하는 그 이야기인데. 그 신문사에서 국제부 기자를 하는데 국제부 기자는 4대의 텔레타이프²⁾가 있어. 요새는 그게 없고 인터넷으로 한다고 하더라고. 그때 제일 큰 통신사가 미국의 AP, UPI, 영국의 Reuter, 프랑스의 AFP, 이 네 곳에 텔레타이프가 있어 가지고 1분에 한 200자에서 250자로 세계 뉴스를 보내준다고, 외신부 기자는 그놈을 전부 읽어내야 하는 거야. 거기서 중요한 기사를 빼 뜨리면, 큰일이 벌어지지. 63년인가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죽었는데 한쪽에서는 케네디가 죽었다고 뛰어들오는데 조선일보 기자가 그것을 놓쳐가지고 신문을 다시 내는 일도 있었어. 그럴 정도로 외신부 기자가 열심히 들여다보고 뉴스를 캐치해야 되다 보니까 영어를 속독해야 되고 정확하게 읽어야 했지. 외신부 기자가 그 훈련이 아주 크다고. 내가 그 훈련을 4년을 받았단 말이야. 대학 다닐 때 영어를 열심히 공부한데다가 1만 페이지 읽으면서 문리도 트였던데다가 이거를 했으니까 내가 영어는 진짜 말하는 건 못해도 읽고 쓰는 걸 잘했지.

듣기와 말하기보다 읽기와 쓰기에 스스로 자신감이 있었던 송복 교수는 유학길에서 자신이 동양의 사상과 서구 학문 사이 긴장 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나 중국 고전을 반복적으로 읽는 것과 서구 고전을 읽는 것 사이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깨달아 후에 붓글씨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계기가 영어와 한문 읽기 사이의 긴장 관계였다.

2) 텔레타이프(Teletype)는 수신신호가 자동적으로 인쇄 문자로 기록되는 전신방식으로 모스부호를 전기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으로 당시 통신사에서 주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송복: 그래도 읽고 쓰는 건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미국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가니까 셰익스피어 전집을 고전판이라고 해서 40권에 100달러 하는 것을 40달러에 세일을 하더라고.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어. 4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미국에 왔으니까, 지금부터 셰익스피어를 한 번 즐거야겠다. 셰익스피어 이거 내가 미국 사람 이상으로 잘 읽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해보니까 엔조이가 안 되는 거야. 셰익스피어 굉장히 어렵더라고. 엔조이라는 거는 우리말 소설 즐기듯이, 시 즐기듯이 즐기는 건데 그게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스트레스는 심하고 그래서 던져버렸어. 내가 영문과 학생도 아니고 사회학 하면서 셰익스피어 뭐 그렇게 열심히 읽어야 할 이유가 있나, 안 읽어지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마침 뭐 때문에 그게 싸여갔는지 모르겠는데, 『고문진보(古文眞寶)』라는게 있어, 옛글의 진짜 보배[라는 뜻] 당송(唐宋) 8대 가를 제외한 중국 대가들의 최고라는 글만 모아 놓은 거야. 그때 내가 열심히 읽던 소동파, 소동파에 유명한 적벽부(赤壁賦)가 있다고, 소동파의 적벽부, 이건 뭐 옛날 한문하는 사람 중에 안 읽은 사람이 없지. 내가 이 적벽부를 어렸을 때부터 읽었는데 적벽부를 읽으니까, 셰익스피어와는 비교가 안 되게 엔조이가 되는 거야. 달밤에 나가 많이 읽었던 게 소동파의 적벽부인데 천 번도 더 읽었어.

그런데 이걸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입에서 단물이 나와 침이 달게 되는 거야. 그게 아주 신기해. 이 한문 글이라는 거는 입에서 단물이 나와. 배가 고파서 읽는 거는 입에서 침이 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배운 한문 그것이 훨씬 양이 많이 들여서 공부한 영어보다도 일생 내가 공부하는 데 더 많은 즐거움을 주더라.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봇을 들고 저렇게 늘 쓰는 것이 [습관이] 됐는데 나는 학문은 서양 학문을 하면서 생활의 엔조이는 동양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야. 봇도 들면 일종의 마니아야, 한 번 봇을 들면 서너 시간은 어떻게 가는지 몰라. 아침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점심 먹

으세요. 그러다 밥 먹고 나서 오후에는 딴 공부해야지, 소화 겸 몇 차 써볼까? 이러면 저녁 먹으세요. 그럴 정도로 사람을 몰입의 상태로 몰아 넣어 버리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내 글씨가 대가의 글씨도 아니고 그냥 선비 글씨로써 즐기는 건데. 그렇게 유년기의 영향 그게 평생을 가는데 나이 들고 정식 학교에서 자기 학문의 세계를 위해 배운 그것보다도 내 인생에서는 훨씬 중요한 무게를 갖게 되더라. 지금 내가 아가 그 많은 것을 썼다는 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해 온 관계도 있겠지만 동떨어져서 현실 세계를 분석하고 하는 것은 오로지 서구적인 학문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할 때만 서구적이고 내 일상은 어렸을 때의 그 연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지.

3. 언론의 길과 사회학으로의 여정

공부에 전념하던 송복 교수는 학교 다닐 때 꿈이었던 <런던 타임즈> 논설위원이 되는 훈련을 하고자 서울대학교 신문사에서 모집한 학생 논문에 투고하였고 그것을 본 본 사상계에서 연락하였고 취직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³⁾ 송복은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송복: 내 학교 다닐 때부터 꿈은 신문사 집필하는 것이었어. 대학 다닐 때 학생들 간에 장래 포부가 뭐냐 물으면 나는 언제나 -그 당

3) 이 부분에서 사상계 학생 논문 모집에 투고한 것이라는 기사도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으나 송복 교수의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면담한 내용을 기초로 서술하려고 한다. 월간산에 따르면 “송 교수가 서울대 정치학과 4년 때인 59년 9월 사상계에서 전국 대학생 논문 현상모집에 ‘한국 지식인의 사명’이란 논문이 당선된 인연으로 입사한 것이다. 부상으로 상금 3만 원을 받았다. 양복 한 벌이 1만2천 원하던 시절이었으니 거금이었다.” 출처 : 월간산 (<http://san.chosun.com>). <월간산> 2008년 2월

시에 신문 중의 신문은 <런던 타임즈>였거든. <더 타임즈>라고 런던에서 낸다고 <런던 타임즈>나 영국으로 가서 <더 타임즈> 논설위원이 되는 게 내 최고 목표라고 그랬어. “영국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논설위원이 되려고 하느냐?”고 하면 <더 타임즈> 논설위원 보니까 외국인도 많이 있더라 그랬는데, 아까 말한 서울대학 신문에서 학생 논문 모집을 하는데 내가 그게 되니까 <사상계>에서 그걸 보고는 대학 4학년 2학기 때, 4학년 2학기 되면 학점을 안 따도 될 정도로 미리 따게 돼. 왜 미리 따게 되냐면 그 당시엔 22학점을 한 학기에 따는데 B학점 이상이 되면 24학점 이상을 딸 수가 있었어. 지금은 그렇게 못하게 되지. 미리 따면 7학기로서 160학점을 넘어가 버린다고 그러면 24 개면 168학점을 딴다고. 1학기에 160학점을 넘어서 4학년 2학기 때는 학교 안 나가도 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 당시 <사상계> 기자는 우리나라 최고 기자였어. 왜냐하면 <동아일보>가 8만 부 나갔는데 사상계가 8만 부가 나갔다고. 그리고 대학 교재로도 <사상계>를 많이 섰다고. 종합 잡지인데 대학교수는 으레 <사상계>에 데뷔를 한 번 해야 명교수가 된다. 이런 시절의 <사상계>였어. 1950년대였지. 60년대를 넘어서면서 <사상계>가 찌그러졌지만은 59년 2학기에, 2학기 끝날 무렵인 59년 11월에 <사상계>에 들어갔지.

우리나라 지식인들을 늘 접하고 지식인들이 쓰는 지식, 경제 글을 늘 읽고, 기자 노릇하다 5·16이 일어나기 전, 군대에 가게 됐지. 군대에 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사상계>에 있으면서 내가 수색에 있는 국방대학원 거기에 많이 취재를 갔다고. 국방대학원에 좋은 교수들이 많이 있어서 교수들 글도 받아오고 청탁도 하고 그때 내가 국방 대령들을 많이 보게 됐지. 사람이 다르구나. 지식이 다르고 통찰력이 다르다는 걸 알았지. 4·19 지나고 내가 군대 가고 1주일 만에 쿠데타가 일어났어. 5·16이 일어났어. 그때 군대 안 간 사람들이 논산훈련소에서 34개월 반을 군대 생활을 했지, 군이란 게 나

한데 큰 영향을 줬는데 내 눈에 커튼이 하나 걸쳐지는 것 같더라. 그전에는 서울대학 정치과 나오고 기자하고 오만을 다 떨었는데 그 때부터 지식의 오만이란 게 참 무의미하구나, 느꼈지. 말하자면 철이 든 거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사상계>에 있었던 <청맥>이란 잡지를 만들었다고 그거를 3년을 만들었어. 만들면서 많은 지식인도 만나고 글도 엄청 많이 쓰고 결혼을 하고 나니까 지쳐서 못하겠더라고. 마침 신문사에서 당시 정치과 나왔다고 정치부로 오라고 하는데 정치부는 못하겠고 외신부면 가겠다고 했어. 외신부는 공부만 하는데, 난 지쳐서 거기 가서 공부만 좀 해야되겠더라고.

잡지 <청맥>은 1960년대를 대표하는 잡지였다. 당시 시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인물들이 주도하면서 만들어졌고 지식인들 사이에서 잘 알려졌지만 <청맥>이 유명해진 것은 통일혁명당 사건이 터진 1968년 6월 말이었다. 청맥의 주간이었던 서울대 정치과 출신 김질락으로 인해서 송복 교수가 조사받게 되었다. 1967년 동백림사건, 1968년의 통일혁명당 사건은 언론계에서 활동하던 서울대 문리대 출신, 학계, 문학가, 지식인들의 세계를 혼란에 빠트렸다. 송복 교수도 그 회오리에 휘말리게 되었다. 그 후의 삶은 또 다른 우연이었지만 사회학자로의 경로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것이었다.

III. 우연성의 인생과 학자의 길을 위한 예비 시기

1. 사회학과의 인연이 시작되다

일제 강점기 사회학으로 박사를 하였거나 사회학을 택한 사람들은 조선으로 돌아와서 사회학을 실제로 가르친 적이 거의 없다. 춘원 이광수도 「민족개조론」에서 신식 학문인 사회학을 소개하기도

하였으나 실제로 일제 강점기에는 사회학이란 학문을 가르치는 학과는 없었다. 해방 이후에도 사회학은 사회학을 전공한 학자가 아니라 다른 학문을 전공하는 과정에서 사회학을 배운 사람이 가르치기도 했다. 대표적인 학자가 이상백이다. 이효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도 송복 교수가 사회학을 접하고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제공하기도 했다.

송복: 하버드에서 실제로 사회학은 한 하경덕 같은 사람이 한국 와서 정식 사회학이란 이런 것이다 하고 가르쳤으면 됐는데. 하경덕 선생은 일제시대 잠시 연전에 있다가 학교를 떠났어. 그러니까 정식 사회학을 한 분이 학교에다가 전파를 학생들에게 사회학 전파를 못 했지. 서울대 사회학과를 보면 사회학을 정식으로 공부한 사람이 없었다고 봐. 이상백 선생이 사회학과 원로 교수로서 오랫동안 가르쳤는데 이분은 역사학자라고. 조선 근대사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란 말이야. 근데 어떻게 해서 이분이 사회학과 교수가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분이 다닌 와세다대학에 사회학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서울대 와가지고는 역사를 가르쳤고 역사 글을 썼고,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는 일본에도 사회학이 발달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일본 학자들이 쓴 책을 찢어와 가지고 그거를 우리말로 번역해 가면서 학생들에게 가르쳤다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이 했어. 이상하다고 생각도 안 했지. 이만갑 선생하고 이세훈 선생이 주로 가르쳤는데 이만갑 선생이 가르친 사회학이라는 전 인구조사 하는 이런 걸 중심으로 가르쳤다고, 조사방법론을 가르쳤다고. 이세훈 선생도 그 계통으로 가르쳤어. 그러니까 내가 학교 다닐 때 사회학은 조사하는 거구나. 아래 생각했단 말야. 근데 이화여대를 나오고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한 이효재 선생이라고 있었어. 이효재 선생은 사회심리학을 가르쳤는데 내가 3학년 때 그거 들어보니까 아. 이게 사회학이구나. 지금까지 듣던 사회학하고는 새로운 사회학을 가르치

더라고. 내가 이효재 선생하고 참 가까웠어. 나보다 나이는 열다섯, 스무살 많은데 내가 사회학하는 데 가장 영향을 준 서울대학 선생은 이효재 선생이었어. 정식 문리파대 교수가 아니라 강사로 나온 분인데. 아마 다른 학생들도 이효재 선생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을 거야.

사실 이효재 교수는 송복 교수가 3학년이던 시기에 이미 이화여자대학교 조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대학에서 사회학을 접한 이후 한참이 지난 1968년 경 서울대학교에 신문대학원이 설치되었다. 이때 송복은 당시 <청맥> 잡지를 접고 신문사로 가서 1년 정도 일하고 있을 때였다고 한다. 자신의 대학 동기인 오갑판 교수의 강의를 듣고 새로운 학문의 세계를 접하고 미국 유학을 결심했다고 한다.

송복: 매스커뮤니케이션이 당시 유행이었어. 매스커뮤니케이션(매스컴) 그것을 학문적으로 하는 대학원이 되어 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내가 수석으로 졸업해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상을 받고 그랬지. 근데 내 동기, 오갑판이라는 교수가 있었어. 오갑판 선생 강의를 신청하려고 하다가 친구 간에 가으이 뭐 듣고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또 친구가 와서 앉아 있으면 강의하는 사람도 좀 쑥스럽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누가 지나가면서 “오갑판 선생 강의를 한 번 들어봐. 그 체계가 완전히 달라.”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다음 학기에 오갑판 선생 강의를 신청해서 듣는데 첫 시간에 내 머리를 뭐가 하나 탁 때리고 지나가더라고. 골을 치며 지나가는 게 있어. 아아 지식의 체계가 다르구나.

나는 <사상계> 기자를 했고 잡지의 주간도 3년이나 했고, 신문사 와서 또 국제 문제를 이렇게 열심히 다루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식을 다루는 것 말고 없었는데, 그래서 나는 내 지식이 상당히 선진화된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강의를 듣는 순간 “이거 지

식의 체계가 다르다. 나도 가서 배워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딱 처음에 일어나더라고. 오갑판 선생이 그 강의 첫 시간에 깨우쳐 준 것 이지. 정말 자기가 생각하고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 미국 유학을 가야 되겠다. 미국 유학을 어떻게 가느냐?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 미국 유학을 안 보내줬어. 못 보내줬어.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그럼 돈 많은 사람은 갈 수 있었느냐? 돈 많은 사람은 김포 공항에서 전부 끌어내서 돈 다 빼았고 안 보내줬어. 100달러를 못 가지고 나가. 최고 한 50달러 정도? 김포 공항에서 검문 검색하는데 여자의 경우에는 인권 유린이야. 속속들이 돈 없나 살피고 우리 남자들은 말할 것도 없었지. 그런 시대였어.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도 가기 어렵고 돈 없는 사람은 더욱 못 가고. 그런데 단 하나 갈 수 있는 게 풀브라이트가 있었는데 주로 대학교수들이 다 모였는데 나는 신문기자로 지원했어. 토플 봐야 되거든. 토플은 500점만 받으면 그 당시엔 최고라고 그랬어. 뭐 600점은 가뭄에 콩 나듯 있었지 우린 들어보지 못했고. 토플 시험을 처음으로 쳤는데 말하는 거는 그때 없었고 듣는 거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글로 하는 거라. 듣는 거는 내가 포기를 했어.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 간신히 500점을 넘겨서 토플은 됐어. 그래서 어플라이 하는데 12명을 뽑는데 대학교수가 150명 왔어. 마침 운이 좋게 내가 1등을 했어. 신문기자지만 1등을 하니까. 안 보내줄 수가 없어서 내가 장학금을 받아 갔는데 그 당시 1971년에 우리하고 미국하고 무슨 큰 차이가 있느냐면, 내가 신문사에서 월급을 참 많이 받았다고. 그 당시 신문사 월급을 월 4만 원 받았어. 내 마누라가 선생을 하는데 선생 월급이 그때 참 좋다 했는 데도 3만 원. 내가 4만 원 받을 정도였으니까 기자로서 아주 최고 봉급을 받았다고. 미국 유학을 가니까 400달러를 주는 거야. 한 달에, 그때 400대 1이니까 최고 월급 4배를 유학생한테 주는 거야. 비행기 값도 제하고 등록비도 제하고 보험료도 들어가고 책값하고 그리고 내 생활비를 400달러씩 주는 거야. 그러니까 비행기 값하

고 등록비하고 아래 하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겠지. 그래서 거기 가서 다른 거 하지 않고 사회학을 했지. 사회학과 들어가서 사회학 석사를 해 가지고 공부하는데 신문사에서는 또 신문사대로 특파원자격으로 가는 식처럼 만들어 가지고 월급을 줬어. 한국에서도 월급을 받고 거기서도 받고 두 군데서 받았지. 근데 그 월급 받은 게 잘못이기도 했지. 신문사에서 월급을 2년 동안 대줬으니까 돌아오라 이거야. 신문기자 하는데 박사가 무슨 소용있나? 석사면 충분하다 그래서 나도 뭐 내가 교수할 것도 아니고 논설위원 할 건데 뭐 하고 돌아왔지.

2. 우연의 종착지: 연세대학교와 인연을 맺다

연세대학교와의 인연이 생기는데 고등학교 동기인 전병재 당시 연세대학교 교수를 다시 만난 것이었다. 우연이 접어든 사회학과의 인연이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로 귀결되는 과정에서 우연이 작동한 것이다.

송복: 오갑판 선생 덕분에 참 깨우쳐서 미국 가서 2년 동안 공부하고 돌아왔어. 그게 1973년이야. 우연히 전병재 선생하고 통화가 되었지. 전병재 선생을 1956년 대학 들어가던 그해에 보고, 73년 말이니 18년 만이야. 18년 동안 전병재 선생하고 연락이 없었어. 전병재 선생은 키가 좀 커서 내가 요기 앉고, 전병재 선생은 뒷자리에 앉았어. 1학년 때만 같이 공부했고 2학년, 3학년 때는 반이 달라서 못했지. 그때 전병재 선생이 나한테 공부를 참 잘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그러더라. 그리고 그 당시 서울대학에서 들어가기 제일 어려운 과가 정치과라서 정치과에 들어가면 전부 수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때라 나에 대한 전병재 선생의 기억이 그런 거야. 나보고 자기하고 안계춘 선생이 와서 가르치는데 안계춘 모르냐고 그러

더라고. 그래서 모르겠다고 했더니, 서울대 같이 다녔는데 왜 모르냐고 하더라고. 안 선생이 나보다 한 해 밑이더라고, 한 해 밑이니까 몰랐던 것 같다 했지. 안계춘 선생하고 둘이서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우리 두 선생 말을 잘 못 알아듣는다. 그때 72학번, 73학번 두 학년이 1학년, 2학년이야. 전병재 선생이 “그 1학년, 2학년 가르쳐 봐야 학생이 도대체 못 알아 듣는다. 우리가 미국에서 오래 살아 가지고 너무 미국식이 돼서 그런 것 같다. 너는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한국에서도 했으니까, 니가 와서 한 번 가르쳐 봐라, 학생들이 알아 듣는가. 우리 그걸 한 번 보자.” 그래서 내가 가르치게 되니까 학생들이 잘 알아들더라고.

그래서 전병재 선생이 하루는 “우리 박사학위 한 사람들보다 학생들이 너 가의에 더 매료돼 가지고 듣는다. 너 여기서 교수 안 할래?” 이러더라고. 사회학과 교수 둘밖에 없고 그 당시에는 석사학위만 가져도 얼마든지 교수하던 시대지. 난 교수할 생각은 없는데 집에가서 의논을 한번 해보마했지. 집사람보고 이야기하니까 신문사 그만두고 갈 수 있으면 대학을 가라는 거야. 나보고 신청해라 해서 74년에 신청을 했는데, 그때 구해근 선생이 연대에 신청했어. 서울대 사회학과를 나오고 정식 사회학 박사지. 구해근 선생이 신청하니까 나는 인제 뭐 석사학위고 별 필요도 없지. 근데 이 구해근 선생이 하와이대학으로 간다고 자기는 못 오겠다고 해서 또다시 전병재 선생이 신청하라고 그래. 그래서 연대로 오게 됐지. 그것도 정말 우연이었어. 그리 안 했으면 지금 신문사에서 집필하고 있을 거야.

IV. 사회학자로 살기: 학자로서 준비하는 시간

송복 교수는 강의를 잘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다. 그의 강의를 들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긍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많은

과목을 가르쳤다. 한두 분야의 전공을 넘어서 다양한 분야의 사회학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다. 신문기자로서, 정치학 전공자로서, 사회학 전공자로서 그리고 어릴 적 배운 한학과 역사학 등 다양한 학문이 그 속에서 용광로처럼 타오르면서 하나의 학문 세계를 열어가고 있었다. 무엇보다 학자로서 그가 학교의 보직을 맡지 않고 오로지 학자로서 교수로서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는 점이다. 그랬기 때문에 소외된 노동을 하기 보다 자신이 길을 찾고 그 길을 꾸준하게 갈 수 있었다.

1. 교수로서 살기: 고난의 강의 행군이 기다리다

송복 교수가 많은 강의를 소화했다는 것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에서는 잘 알려져 있다. 말 그대로 고난의 강의 행군이었다. 1979년 대통령이 시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어떻하지?”가 아니라 “아 오늘 강의가 없겠구나!” 였다고 한다. 그 정도로 강의 준비를 하는 데 온 힘을 쏟았던 송복 교수는 많은 강의를 하면서 학자로서 교수로서 다작을 준비할 수 있는 훈련을 받게 된 것이다.

송복: 사회학과 들어가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회학을 했는데 그때는 선생이 없으니까 전병재 선생하고 안계춘 선생은 필수 과목만 가르치고 그 외의 과목들이 많잖아. ‘사회사상사,’ ‘매스컴사회학,’ ‘도시사회학,’ ‘가족사회학,’ ‘사회변동론,’ ‘사회조직론,’ 정치사회학, ‘이렇게 일곱 개를 가르쳤어. 일곱 개 각기가 다 전공하는 과목이었고 전교 학생을 상대로 하는 강의가 하나 있었어. 그게’사회와자율‘인데 그 당시 자율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유행했어. 그래서 자율이 뭐냐 가르치라 해서 그걸 또 하나 가르쳤어.’농촌사회학‘은 서울대학에 농촌사회학을 전문으로 하는 교수가 있었는데 나보

다 3년 위인데 다시 안 나타나더라고. 그 '농촌사회학' '을 가르치고 사회학사는 전병재 선생이 가르치고, 안계춘 선생은 늘 방법론하고 인구론 두세 가지만 가르쳤는데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7시에 나와서 밤 12시까지 그 강의 준비만 했어. 그러니까 그 강의 준비를 하는 동안에 쌓인 내 지식의 양이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

강의 방식이 노트나 책 혹은 어떤 것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내용을 다양한 역사적 사실과 논리를 함께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진행한 스타일로도 유명했다. 그 배경이 되는 교수가 두 명이 있었다고 한다.

송복: 대학 강의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가 대학 다닐 때 두 분 선생님이 있었는데 한 분은 이용희라는 선생님이었어. 아주 유명한 분인데 돌아가셨어. 이분이 연희전문 밖에 안 나온 분이야. 한 분은 민병태라는 선생이 있었어. 게이요 대학에서 그 당시는 드물게 석사를 했다고. 이용희 선생은 수업 시간에 메모 한 장 없이 강의를 해. 자기가 쓴 책도 있지만 책도 안 들고 와. 근데 아주 그 강의가 체계적이고 학생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니까 명강의야. 서울대학 최고의 명강의야. 연희전문밖에 안 나왔는데 한문도 뛰어나고 영어도 잘하고, 불어도 잘하고 이런 분이야. 민병태 선생은 충청도 만석의 아들로서 일본 게이요 대학 석사까지 한 분인데 노트를 들고 와서 늘 읽어주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급하게 읽어가는데 학생들은 그거 받아 적기에 정신없는 거야. 다 적고 나서 다시 보면 그 내용이 참 좋긴 좋았어. 근데 이 민병태 선생 방식으로 강의할 것인가 이용희 선생 방식으로 강의할 것인가 이랬는데

그 당시 교수들의 90%가 민병태 선생 방식으로 원고 들고 노트 들고 와서 읽어주었다고. 나는 이용희 선생 방식으로 하자. 그래서

강의 준비를 닥 해가지고 그걸 전부 머리 속에 메모를 해야 되는 거야. 지도를 그려가지고 수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출석부 하나 딱 들고 갔다고. 노트고 메모 용지고 하나 없이. 내가 28년 동안 메모 용지 하나 안 들고 갔어. 머리에 딱 넣어가지고 그렇게 골프고 바둑이고 다 두고 강의 준비만 했지. 얼마나 이 강의 부담이 커냐 하면 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10월 26일, 그날도 새벽 1시까지 강의 준비를 했어. 강의 준비를 하다가 잠이 들었다고. 내가 정식으로 가서 교수가 된 건 75년 3월부터고 사회학을 가르친 74년부터 쳐도 74, 75, 76, 77, 78, 79년까지 거의 6년을 가르쳤는데 10월 26일 새벽 1시까지 강의 준비를 하는데 5시에 전화가 오더라고 신문사에서 왔어. 박 대통령이 죽었다 이러더라고. 그 순간 말이야. “오늘 강의가 없겠구나”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거야.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사회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그다음 생각이야. 오늘 강의 없겠다. 그 강의 준비를 하는 부담이 6년이나 됐는데도 그렇게 계속되는 거야. 그리고 끝없이 담배를 피워가면서 해야되고, 그럴 정도로 강의 준비도 많이 하고 강의 부담이 센 거는 내가 그 7과목을 돌아가면서 다녔으니까. 그 강의 준비를 위해 쌓아 놓은 책만 하더라도 수십 권, 전체 다 하면 수백 권이겠지. 6년 동안 하면 수천 권쯤 됐을 거고, 그렇게 하고 늘 메모 하니까 지금은 어떤 강의를 해도 한 장의 메모도 없이 12시간 그 이상을 할 수 있어. 물론 주제는 다 다르지. 각기 다른 주제로 12시간 이상을 할 능력이 생기더라고. 그리고 박학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야. 동서남북을 다 했으니까. 그게 내 초기의 대학 교수 시절이었어.

박사학위를 위해 서울대 정치과에 입학한 것은 바쁜 교수인 송복을 더욱 바쁘게 만들었다. 당시 연대 정외과에서도 박사 과정생을 받긴 했지만 같은 학교라서 서울대 사회학과에 문의했다가 정치과에 최종 입학하게 된다. 그 해가 77년이다. 그러니까 7개의 교과목

을 강의하면서 박사 과정 입학과 박사를 위해 3년 동안 매 학기 논문 발표는 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송복: 연대 가게 되어 전병재 선생에게 교수 되려면 박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래 물으니 연대에 박사학위 소지자가 강변에 자갈만큼 많다. 너까지 박사 할 필요 없다. 석사면 충분하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박사 안 하고 갔는데 가만히 보니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 연대 정외과에서 나보고 오라고 하는 데 같은 대학에 있으면서 거기 가서 뭐 하겠냐고. 그래서 서울대학에 갔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가서 박사를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학교 휴직을 하고 오라고 하더라고. 그럼, 정치학과에 가서 하겠다. 정치학 가서 하자 하니까 우리는 휴직은 필요 없고,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은 나와야 된다고. 목요일까지 학교 강의해라. 그런데 여기는 박사학위가 좀 까다롭다. “까다로운 게 뭐요?” 물으니 들어와서는 학기마다 가기 쓸 논문을 발표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박사학위를 언제 줘요? 이래 물으니 서울대학 박사학위 규정이 3년이래. 그러면 5번 발표하고 6번 째 논문 통과 시험 봐 가지고, 3년이면 줄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서울대학에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한 6년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매학기 연구 주제를 발표할 수도 없다. 그 래 해보자고 연대 75년에 정식으로 와서 77년에 서울대학 박사학위를 들어갔어. 나와 같은 교수들이 4명이 들어갔다고. 나말고 3명이 더 들어갔어. 네 명이 정식으로 하는데 학기마다 주제 발표를 하는 것은 나뿐이었고 다른 교수들은 쓰임도 안 정해지고 못 정하고 발표할 수도 없고 그게 끝나고 나온 책이 『조직과 권력』이라고, 그게 내 박사학위 논문을 낸 거라고.

2. 소외된 노동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학자의 길을 찾다

송복 교수는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로서 지내면서 어떤 보직도 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의 시간을 향유할 수 있었던 시간의 주인으로, 쓰고 싶은 글만 쓴 글로부터의 자유, 돈으로부터의 자유 등을 은혜라고 표현 한다. 그가 학자로서 길을 갈 수 있었고 평생 자신이 원하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점은 소외된 노동에서 벗어난 생계형 교수가 아닌 학자로서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커다란 공간을 마련해주었다.

송복: 연세대학교에서 정년을 마쳤어. 내가 연세대학교에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 연세대학을 내 모교보다 사랑하지. 연세대학에서 세 가지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는 내 시간의 주인은 나였다는 것이야. 나는 학교의 라인에 들어간 본 일이 없어. 총장, 부총장, 처장, 다른 말로 나는 보직을 받아본 적이 없어. 보직을 가지라고 많은 압력도 있었지만 결국 안 받았지. 보직을 안 받으니까 학교 조직의 명령에 따를 필요도 없었어. 나를 명령하는 것은 오로지 나 자신이었지. 그래서 내 시간의 주인은 나였어. 첫째가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웠던 거라면 두 번째는 글로부터 자유로웠던 거야. 나는 쓰고 싶은 글만 썼어. 누구의 압력을 받아서 써본 일도 없고 압력 때문에 쓰고 싶은 글을 못 써본 일도 없고, 돈을 벌기 위해 글을 써본 일도 없어. 오로지 내가 쓰고 싶은 글만 썼어. 세 번째, 돈으로부터 자유로웠어. 나는 한 번도 돈을 벌기 위해서 대학에 연구비를 신청해본 일도 없고, 받긴 받았지만 그건 돈하고는 상관없었어. 또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외부의 용역을 받아본 일도 없어. 세 개의 은혜, 시간으로부터의 자유, 글로부터의 자유, 돈으로부터의 자유 난 연세대학에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 교수 생활 28년을 했지. 잘 지냈어.

V. 사회학자로 마치기: 인간을 이해하며 사회를 분석하다

1. 강의를 통해 정수를 찾는 학자로서 우뚝서다

불평등 강의는 산업화가 진행되던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각의 틀을 제공해주었다. 송복 교수의 갈등론 강의는 매우 탁월했는데 많은 학자를 소개하는 것보다 한자를 풀어가면서 단어와 용어를 중점적으로 해설해 주면서 이론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따라 가기 편하도록 가르쳤다.

송복: 내가 아홉 개를 가르쳤지. 학기마다 내가 가르치는 거는 1년에 한 번씩, 1학기 때 가르치는 거는 사회조직하고 사회변동하고 사회계급, 그리고 다른 걸 붙이는 거야. 도시사회학이 붙든가, 언론 사회학이 이 다섯 과목을 매 학기 가르친단 말이야. 2학기에는 사회 조직, 사회계급, 사회변동은 안 가르치고 사회구조와 자율, 도시사회학, 가족사회학, 언론사회학 이런 걸 가르쳤어. 그때는 우리 교수 수가 적었으니까 내가 5과목 2과목 아닌가? 그때는 3과목인데다가 선생이 없으니까 2과목씩 더 가르쳤어. 절량(絶糧) 농가라고.'끊어질 절 "양식 량 '자야. 농가에 양식이 떨어져버린 상태를 보릿고개라 하거든. 60년대에는 늘 절량농가지. 보릿고개가 있었어. 우리 인구의 반이 밥을 짖었어. 오늘날 북한하고 다름없었지. 강의 준비를 해 놓으면 절량농가에 양식 떨어지듯이 강의 준비한 양이 떨어지는 거야. 강의해버리면 또 준비해야 되고, 또 준비해야 하고, 이런 시절이 내가 대학 가고 5년이 넘도록까지 이어졌어. 매일 그 강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1년에 거의 10과목씩 가르치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10년을 하고 나니까 박식해지는 거야. 가족에 대해서, 도시에 대해서, 사회사상이라든지 사회변동에 대해서 10년 내내 한 우물을 파는 작업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논문하고 책도 많이 섭렵할 뿐 아

니라 판서하고, 그러면 강의는 어찌하느냐, 머릿속에 지식의 지도를 그려가지고 강의하는 거야. 머릿속에 어떻게 지도를 주워 넣느냐 하는 그거는 자기가 터득하기에 달린 거고. 그래서 지금도 나는 메모한 장 없이 12시간을 강의할 수 있어. 그때 10년 동안 닦은 결과지. 그게 뭐 대학에서 일화라면 중요한 일화인데

송복 교수는 이런 강의 준비를 하면서 사회를 그림자와 그림자를 이루는 근본인 실체로 나누면서 설명한다.

송복: 사회조직하고 사회계급 이 두 개가 실체로서 늘 나타나는 거야. 사회 이론을 배우지만 이론은 실체가 아니고 실체의 그림자. 사회심리학 실체의 그림자고, 안 선생한테 필수로 배운 통계도 사회의 그림자야. 사회 자체는 아니라고. 사회 자체는 아니라고 그럼 내가 말하는 사회조직이다, 사회계급이다, 그거는 실체, 그 자체냐? 물론 실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실체를 갖다가 실체로서 있는 힘을 다해서 설명할 뿐이자. 그것도 따지고 보면 그림자일 뿐이지. 그런데 사회는 뭘로 짜여져 있느냐? 내가 제일 먼저 의문을 느낀 게, 왜 사회라고 했을까? 하는 거야. 영어로는 society인데 이 소사이어티를 왜 사회라고 번역을 했지? 왜 사회야? 사(社)는 토지 귀신의 사 '자라고 토지 귀신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닌가? 사직이라고 봉건사회, 농업 사회에서는 토지하고 곡식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거잖아. 그게 핵심이잖아, 그래서 사직이라고 임금이라는 게 토지하고 곡식 신 한테 제사를 지내서 백성 먹여 살려 주고 내 임금 노릇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래서 이 사직이 국가라는 말도 되고 왕가라는 말도 되고 왕권이라는 말도 되지. 내가 사회조직을 가르치면서부터야 그걸 왜 사회라고 했지? 나도 그전까지는 별로 생각을 안 했지. 근데 이거 누가 사회라고 번역했어?

일본이 만들어 냈어. 왜 사회라고 했을까? 일본어를 보니까 일본

여에 처음부터 결사라는 말이 있어. 결사, 토지귀신이라는'귀신 사'자도 되지만 자기들이 쓰는 결사(結社), 어소시에이션(association)을 결사로 번역했잖아.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쓰던 말을 그대로 쓴 거야. 결사는 모임에 모인 조직이 아닌가? 사회라는 거는 조직의 모임이다. 내가 조직을 가르치면서 아 이래서 이 사람들이 사회라고 번역했구나. 결사라는 건 개인들이 모인 것이고 개인은 혼자서는 살 수 없으니까. 그때는 집단을 이루어야 하는데 집단 중에서도 개인을 가장 효과적으로 생산하게 만들고 효과적으로 개인들을 통제하게 만들고 효과적으로 개인을 감시하게 만들고 사회라는 것은 집단의 집합체다. 교류하는 사람들의 집합체다.

송복 교수는 한자를 배워야만 한자를 이루는 원리를 터득한다고 했다. 그래야 창의력이 생기는 것이고 사고가 합리적인 사고를 발전 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는데 서로 다른 요소를 이렇게 저렇게 조합 하다보면 새로운 결과물들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그림자 혹은 현상 이다. 우주가 5행에 의해서 이루어지듯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근본 요인 혹은 실체(송복 교수의 표현)를 찾아 그것이 드러나는 과정 그리고 그것들이 결합하여 만드는 현상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사회학자의 길이었다. 그래서 한자를 배워 한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하고 그것을 다시 사회를 보여주는 언어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구조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진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런 송복의 사회학에 대한 태도는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에 대한 분석에서도 그 만의 시각과 방법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송복: 사회라는 것은 조직의 집합체다. 큰 조직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업 아니겠어? 내가 사회조직을 가르칠 때, 4가지 부류의 조직을 구분했지. 어떻게 해서 4가지 조직이 만들어졌느냐? 서양의 조직론자들이 체계적으로 분류를 잘했지. 여러 가지를 변수로 해서

나눌 수 있어. 사람은 사회에 살면 누가 이익을 받으려고 하지. 손해 보려는 사람은 없고 전부 이익을 받으려고 해. 누가 이익, 혜택을 많이 받느냐? 누가 수혜자냐 who benefits?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자. 조직을 만들면 그 조직 내에 모든 성원이 다 이익을 받는 게 있겠고, 조직을 처음 만든 오너가 이익을 받는 게 있겠고, 조직을 이용하는 놈이 이익을 받는 게 있겠고. 사회 전체가 받는 게 있겠고. 그럼 4가지가 있을 것 아닌가? 그래서 네 가지 이거는 실체다. 하나하나가 네 가지 조직을 보는 것 같으면 조직원 누구나 다 이익을 본다. 권력 면에서는 정당이 될 수 있고 종교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사회의 핵심이다. 자본주의라는 건 어떻게 해서 만들 어졌는가? 자본주의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다음부터는 거기에 의심을 가졌단 말이야. 맑스는 자본주의가 역사상에 보면 자본가라는 계급하고 노동자라는 계급 두 개로 만들어진 계급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밖에 없더라, 자본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 계급하고 노동밖에 없는 노동자 계급하고 두 계급이 서로 더 많은 이익을 보기 위해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사회, 투쟁하고 있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이다. 맑스는 그렇게 정의내렸단 말이야. 베버는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은 필요조건은 되나 충분조건이 아니다. 충분조건은 뭐냐 조직이요. 기업이라는 조직이 있어서 이 자본주의 사회가 되는 거요”하고 베버의 유명한 자본주의 정의거든. 그래서 이거 조직이 사회의 실체다. 그래서 조직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되겠구나 했지. 이 조직에는 반드시 상하가 있잖아. 높은 놈이 있고 낮은 놈이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계급을 보게 됐는데, 그러니까 사회는 쉽게 말하면 상중하가 있다. 그건 사회 실체다. 나는 사회 실체를 갖다가 학생들에게 가르쳐 보도록 해야되겠다 한 거지.

송복 교수의 실체를 찾아가는 송복 교수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에서 찾았다. 서로 다른 한

자의 부수들이 모여서 한자를 구성하듯 다양한 주체가 모여 민주주의 사회를 이루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라고 바라보았다.

송복; 민주주의라는 것이 뭐냐. 다원주의를 민주주의라고 가르쳤다고. 다원주의란 뭐냐 1950년대 내가 대학을 다니는데 정치학 하는 우리 선생님이 영국 이론을 받아들여 다원주의 강의를 하는 거야. 다원주의,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선생은 영국 거를 번역해서 노트 보고 읽어주니까 자기도 아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아무리 들어도 다원주의가 뭔지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내가 조직을 하면서 아 이게 다원주의구나 알겠더라고. 다원이라는 게 뭐냐. 글자부터가 번역도 이게 참 잘한 번역이야. 다원주의pluralism, 이게 원이라고 원이 뭐냐 '으뜸 원'자인데 이게 주체란 말이야. 으뜸이 주체거든, 사전 찾아보면 '주체: 으뜸'이라고 써 놓았다고. 으뜸이 많다는 거는 주체가 많다는 거야. 전통사회, 농업사회, 봉건주의 사회는 일원주의라, 일원주의는 주체가 하나뿐이야. 임금의 몸이 주체라. 그 당시에는 임금의 몸이 주체고 임금은 하나뿐이다. 하늘 아래 태양은 하나뿐이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오늘날 다원주의라는 거는 모두가 다 주체야. 누구나 다 으뜸이다 이거야. 누구나 으뜸 중에서도 제일 으뜸이 뭐냐, 으뜸을 모아 놓은 결사다 이거야. 조직이 으뜸이라 조직이 주체다. 전통사회에서는 조직이 없잖아. 근데 현대 사회에 오는 것 같으면 많은 조직, 우리나라에서는 조직이 몇 개야? 약 400만 개가 돼. 자영업자, 대기업, 병원 다하면 일 년에 발표하는 게 400만 개(2012년 기준)의 주체가 있어. 주체가 있으니까 다원주의지, 근데 그게 전통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잖아. 오늘날 북한은 조직기 없어. 김일성이가 주체지. 김일성의 몸이 주체야, 세습하는 건 당연한 거야. 왜냐면 황조가 세습하잖아. 아버지 주체, 아들 주체, 손자 주체로 내려가는 거야.

민주주의가 다원주의잖아. 그러니까 사회조직이 안 만들어지면 절대 민주주의 안 된다. 그때 한창 70, 80년대 반독재 투쟁이 벌어졌

을 때, 산업화해서 사회조직을 많이 만들어야된다. 산업화=사회조직의 생성이라. 산업화하면 기업체 수가 많아져 가니까. 기업체 수가 많으면 기업체를 기반으로 한 그 외의 조직이 수도 없이 만들어져, 기업체가 있어야 병원도 만들어지고 학교도 만들어지고 기타 모든 게 서비스도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반독재 투쟁하지 말고 산업화를 빨리하도록 하면 자동적으로 민주화된다. 내 이론은 그거야.

민주주의라는게 뭐야? 산업사회의 정치가 민주주의라고. 그게 자유민주주의잖아. 산업사회의 경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고 산업사회의 사회가 개인의 해방, 인권, 개인 선택의 자유, 이것 아닌가? 산업사회의 문화가 다양성이잖아. 그러니까 산업사회가 안 만들어지면 민주주의 기본은 절대 만들어질 수가 없다. 기본이 없는데 어떻게 민주주의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반독재 투쟁하지 말고 박정희를 도와가지고, 빨리 산업화를 시켜라, 어쨌든 박정희라는 독재자가 나와 가지고, 정치로부터 경제를 분리시켜 경제 성장을 이룩하니까, 오늘날 민주주의가 된 거란 말이야.

산업화의 토대를 민주주의와 연결하려고 한 송복 교수의 시도는 기능론적인 계층 인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조화와 화합이라는 동양적인 사상의 근본과 통하였다. 1960년대 후반에 비록 그가 사상사적인 전환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토대 형성에 기반한 인식의 전환을 제시함으로써 유물론적인 연구 방법론을 유지하고 있었다. 사실상 트로츠키의 영구혁명론으로도 볼 수 있으며, 1990년대 장쩌민이 중국의 자본주의적 경제 성장을 일컬어 언급한 “사회주의 초입 단계”는 부르주아 자유주의 혁명에 이은 사회주의 혁명을 뜻하는 것이었다. 송복 교수는 산업사회와 민주주의라는 발전 단계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이론을 전개한 것이다. 나아가 송복 교수는 산업사회와 민주주의 사회를 연결하는 인식론적 기반에 터 해 불평등을 투명성에 기반한 사회이동과 연결하였으며 한국 사회의 갈등구조를

지리적·사회적 ‘이동’이란 개념으로 풀어보고자 하였다. 『한국사회의 갈등구조』라는 역작은 이 접근 방식의 소산이었다.

송복: 우리나라 사람들의 최고 약점은 객관을 인정 안 한다고. 특히 자기 이익에 관계된 불평등에 관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판사판으로 달려든다고. 사생결단으로 달려드는 거야. 그것 때문에 우리 한국이 이렇게 발전도 하고 다이나믹 소사이어티(dynamic society)가 된 거야. 그만큼 우리 사회는 아주 치열한 경쟁사회가 됐지. 근데 이 경쟁사회에서 우리의 취약점이 뭐냐면 투명성이 부족한 것이다. 경쟁이 치열하면 할수록 중요한 게 이 투명성이라고. 투명성이 될라 하면 서비스업이 그만큼 발달해야 돼. 그래서 요새 내가 이 서비스업을 강조한다고. 서비스업을 하면 첫째로 국민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해야 돼. 이 제조업은 그레이드 업(grade up)이 잘 안돼. 우리나라 교육 수준으로 말하면 전 세계 최고잖아. 교육 수준은 최고인데 국민 수준이 최고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그러면 교육 많이 받고 가정 교육 잘 시키면 수준이 올라갈 건데 왜 국민 수준은 안 올라 가느냐는 말이야. 국민 수준 그레이드 업은 아무리 교육을 높여도 안 되더라. 직업적 수준이 올라갈 때 국민도 그레이드 업이 되더라. 직업적 수준이 올라간다는 게 사람들이 평등에 가까이 가는 거라고. 직업적 수준이 낮으면 늘 불평등 속에 살 수밖에 없어. 그것도 투명성이 없는 불평등 속에 사니까 불만이 속에 차는 거지. 한국 사람보고 한이 많다는 소리 하는 거. 왜 한이 많은가 보니까 내가 받아야 될 대우, 내 능력만큼 대우를 못 받는다고 생각이 되거든. 자기 능력은 언제나 높이 평가하잖아. 그렇게 해서 한국 사람이,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이동(mobility)이 말이야. 이게 한국만큼 이동이 심한 사회가 없어. 너무 이동이 심하게 되면 공중에 떠 있는 거야.

사람의 이동은 지역 이동, 계급 이동, 직업 이동 세 개거든. 이 세 개의 이동이 너무 많아. 직업도 고참이라는 게 아주 드물어. 고참

이 없다는 것은 이동을 많이 해버렸다는 얘기야. 물론 대기업 같은 데는 있지만 그 수는 적고 직업 이동이 심한데 물론 학교 같은 데 이런데야 직업 이동이 있긴 어렵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직업 이동이 많지. 직업 이동이 많은 데다가 지역 이동도 많지. 거기다가 돈을 좀 잘 벌면 툭 튀어 올라갔다가 좀 못 벌면 툭 덜어지지. 계급 이동이 아주 심한 거야. 그래서 내 『한국사회의 갈등구조』를 보면 우리 계급 이동에 대해서 한국 사회의 갈등구조는 전부 이동으로 설명했다.

한국 사회의 갈등 구조를 '이동'으로 설명하는 시각은 우연히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조사를 접하면서 시작하였다. '이동'이 한국 사회의 지역 간 갈등의 전부를 설명할 순 없지만, 실증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할 수 있는 기초가 이미 형성되어 있음을 찾을 수 있었다(송복, 1990: 17).

송복: 1980년대 초 전남대 심리학과에서 선호도 조사를 했다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조사를 김진국 심리학과 교수가 한 거야. 뭐를 좋아하고 싫어하느냐, 어느 지역 사람이 어느 지역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건데 그걸 세 가지로 봤어. 어느 지역 사람하고 결혼하겠느냐?, 어느 지역 사람하고 사업하겠느냐?, 어느 지역 사람하고 친구 맺겠느냐? 사람이 살아가는 데 기본이잖아. 그 호도 조사의 점수가 다른 도가 다 비슷비슷한데 전라도 하나가 딱 떨어지는 거야. 전라도 사람하고 사돈 안 맺겠다, 친구 안 하겠다, 사업 안 하겠다는 수가 다른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는 거야. 이게 왜 떨어지느냐? 떨어지는 것도 모든 도가 비슷비슷해. 근데 충청도가 더 떨어져, 충청도가 전라도에 대한 호도 조사가 더 낮아.

왜 이런 현상이 떨어지느냐? 그거는 내가 56년에 서울에 왔을 때 나도 경험한 거지. 이 전라도 사람들 하숙을 안 시켜줘. 56년에 내

가 왔는데 안암동에, 돈암동 바로 옆에 있어서 우리 학교까지 가깝지. 안암동에서 하숙하는데 나하고 같은 방에 있는 학생이 추운 겨울인데 12월쯤 됐을 거야. 방학하기 전인데 우연히 나하고 만나서 들어오게 됐는데 들어오는 골목에 목도리가 하나 떨어져 있더라고. 그때 목도리는 아주 귀한 거지. 누가 목도리를 떨어뜨렸네, 이러면서 나하고 같이 가면서 주웠어. 주워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하숙집 주인한테 아주머니 여기 들어오는데 골목에 목도리가 떨어져 있는데 주인 찾아주시오, 이러는데 순간 사방에서 문이 확 열리는 거야. 열리면서 아주머니 아래도 우리 전라도 사람 푸대접 할거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놀랬어. 그래서 나하고 같은 방에 들이 있었는데 “야 그게 뭔 소리야?” 이러니 나는 부산에서 왔으니까 그런 설움 안 당했을 거야. 목포에서 왔는데 우리 하숙을 안 준다. 이 서울놈들이 6·25 때 우리한테 혜택도 많이 입었다던데. 하숙을 안 줘서 우리 이 집도 근근히 구해 가지고 들어왔다. 전부 전라도 사람들이 다. 이거야 다른 데는 잘 안 주니까. 그래? 그런 일이 있었나?

근데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도 전라도 사람이 머슴을 많이 살았는데, 우리 전라도, 경상도는 뭐 다 같은 농촌이니까. 근데 우리 지방 사람들은 경상도 말로 짹싹하다, 친절하다, 일도 잘해준다, 그렇게 생각해서 전라도 사람한테 호감이 있었다고, 근데 서울 오니까 영 다른 거야. 어렸을 때 경험이 있었는데 김진국 교수가 조사하니까 그렇게 나왔단 말야. 그때 내가 연세대학교에 75년부터 정식으로 했으니까. 내가 오고 얼마 안 된 5년에서 6년, 많이 봐야 7년 되는가, 그 조사 자료를 봤단 말야. 그때 전라도 사람들은 바닥에서 올라왔거든, 경상도는 엘리트가 올라왔단 말이야. 경상도는 돈을 짚어지고 올라오고, 전라도는 소작농이 중심이고 경상도는 자작농이 중심이고 성루 올라오니까 밑바닥에서 올라왔다고.

해방될 무렵에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인구가 비슷했다고. 전라도도 농업지대고 경상도도 농업지대인데 경상도는 지경이 좀 넓은 데

산은 많고, 전라도는 지경은 좁은데 평야가 많고 인구가 비슷했던 말이야. 근데 인구가 전라도가 경상도의 3분지 1밖에 안 되는 거야. 경상도 인구가 세 배로 많아. 그럼, 어디로 이동했느냐? 부산에 가면 한 30%가 전라도 인구라고. 부산이다, 울산이다, 공업지대로 이동할 수밖에 없잖아. 수도권에 전라도 사람이 8백만이라고, 지금 수도권이 2천 3, 4백만 될 거야(2010년 기준) 거의 3분지 1이라고. 그럼, 전라도가 이동을 많이 해 온 거잖아. 이동이 호구 조사에서 점수를 낮춘 거구나. 지역 갈등을 유발한 거구나. 그래서 왜 이동하면 지역 갈등이 유발되는가 하는 것을 내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했지. 여러 가지 사회학적 이유로, 근데 이동을 보게 된 이유가 이제 말한 대로 그런 대학 다닐 때, 공부할 때하고, 그다음에 전라도 인구가 준 것하고 자연히 보게 됐는데 이동을 보면서 아, 우리 계급 이동도 똑같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본 것이지.

2. 후학들이 현장 사회학을 하기를 권(勸)하다

송복 교수는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통찰력을 기르기 위해서 강단에 있는 교수들이 해야 할 일은 현장에 집중하고 현장에 답을 찾는 것이라고 말한다.

송복: 내가 다른 교수들하고는 경력상에 차이가 있어. 다른 교수들은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학교라는 거를 안 떠나봤잖아. 다른 선생들은 일체 다른 직업을 가져보지 않았다고. 나는 사회에서 언론계로 출발해서 74년까지 했으니까. 군대 3년 빼고, 미국 유학 2년 빼고, 59년부터 15년, 10년 미국 가서 특파원 노릇을 했으니까. 모두 한 13년쯤 나는 그걸 했다고. 기자로 뛰었다고 이 사회학자라는 게 우리 사회 조사할 때 가서 보듯이 사회조사라는 게 현장 실사하는 거야. 그것처럼 나는 신문기자로서 늘 현장을 뛰어다녀보고, 정친도

50년대 말, 60년대 초 춘보선이라든지 박상원이라든지 그 당시에 장면이라든지, 유명한 정치인들 실제로 다 만나보고 했단 말야. 국방대학원 취재를 하면서 국방부 군인들도 많이 보고 했단 말야.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봤기 때문에 늘 몸에다가 하는 거야. 근데 정치학자들도 그렇고 사회학자들도 그렇고 실무를 알아야 되는데 실무를 모르거든, 현실 체험을 못해봤단 말이야. 나는 다른 선생들에 비해서 십몇 년을 체험했잖아. 체험하고 학문으로 들어가니까 현실하고는 다른 소리하는 걸 알지.

학생들이 학교를 나가면 사회로 간다. 그럼 사회로 나가면 실제 내가 들어가 있는 체(體), 사회의 몸 거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나는 가르쳐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주력하여 가르친 것이 사회 조직하고 사회계급이지. 사회계급은 불평등이잖아. 그래서 불평등을 가르쳤는데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조직하고 불평등 계급에서 그거를 늘 보면서 가르쳤다. 서울대학에서 사회학자들이 처음부터 50년대에 사회학을 만들어서 50년이 뭐야. 70년 전쯤, 70년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 사회학을 가르쳤는데 도대체 사회가 뭔지 학생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 같애. 서울대학에서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길래, 한 60년 서울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쳐서 내보내는데 취직하려 사회에 나가면 뭐하는 학문이냐 묻도록 만들었느냐. 요새도 학생 취직하려가봐, 정치학이 뭐하는 학문이냐 묻는 사람 없잖아. 사회복지 뭐하냐, 행정이 뭐하는 거냐 아무도 안 묻는데 사회학했다고 하면 사회학이 뭐하는 학문이냐? 반드시 묻잖아. 60년, 70년을 가르쳤는데 사회학이 뭔지 모른다고. 지가 사회 속에 사는데 그거는 공부하고 나간[졸업한] 사람이 이론만 배우고, 사회심리학만 배우고, 통계학만 배워가지고 나가다 보니 실체를 못 배우고 나갔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당신 사회학 공부 뭐했소? 사회학이 뭔지 모르겠다는 대답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나는 현재를 보고 현실을 봤기 때문에 그게 가장 맞는 것이 뭐냐? 첫째는 현실을 갖다가 살아 있는 현실로 어떻게 생생하게 학문적으로 그릴 것이냐? 죽은 현실, 이건 아무 소용이 없고, 살아 있는 현실, 그건 내가 체험한 현실이고 그걸 학문적으로 어떻게 체계화할 것이냐? 그러니까 내가 체험한 현실은 팩트고 내가 학문하는 거는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키는 것이고, 학자하고 기자하고 놓고 보면 기자는 팩트는 잘 알아. 근데 그걸 체계화를 못시켜. 학자는 체계화는 시키는데 팩트를 몰라. 하나는 맹목적이고 하나는 공허한 거야.

사회학자는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면서 또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맹자의 유명한 말인데 ‘불성장부달(不成章不達)’이라. 장(章)이라는 것은 문장인데 문장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 통달하지 못한다. 깊은 지식을 못 갖는다. 문장이 형식 같지만 절대 형식이 아니라고. 문장을 잘 이를 수 있어야 지식도 깊어지는 거야. 문장을 이를 수 있어야 어떤 이치에 통달하는 거야 나는 늘 그 이야기를 했지. 파도를 타지 않는 문장은 읽지도 말아라. 모든 문장은 파도를 타야되는 거야. 리드미컬하게 훌러가야 되는 거야. 글 쓰는 건 다른 사람이 알라고 쓰는 것 아니냐, 문장 공부를 해야 한다. 문장은 길면 안 되고 헤밍웨이 문장처럼 간단하게. 언제나 ‘일침견혈(一針見血)’이라. 일침견혈은 명의는 환자의 아픈 부위를 잘 진단해서 거기다 침을 한번 꼭 찌르면 나쁜 피가 나오게 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좋은 문장은 한 번 닥 읽으면 어 그 말이구나, 그렇게 문장을 써야 이게 성장이라. 그래 안 쓰면 이건 불성장이고, 그래서 문장 수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문장을 어떻게 수업하느냐? 그거는 문·사·철을 할 수 밖에 없어.

문(文)이라는 것은 직관, 직관의 언어, 감동의 언어를 만들어 내는 직관, 우리는 전부 분석하잖아. 분석하지 않고 소설 쓰는 사람, 시 쓰는 사람들은 한 눈으로 탁 보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네. 인심이 이러네 하고 파악하는 거야. 감동하지 않는 글은 글로써 별 의미가

없어. 문장(文章)이라는 것은 감동을 줘야 하고, 감동하도록 써야 하고, 그리고 아주 통찰력 있게 써야 하고, 그리고 문장이 유려해야 되고 세 가지 그게 있다고 그것을 갖다가 통·감·려라고 해, 통찰·감동-그리고 문장이 수려해야 되거늘. 통찰력이 있어야 깊이 세상을 본다. 감동을 줘야되고 수려해야 되고 문체를'잘 한다 '보다 사람들이 이 읽으면 참 문장이 아름답다. 이렇게 문을 해야 되고 사(史)를 하려고 하면 역사만큼 통찰력을 주는 게 없거든. 통찰의 언어는 역사, 철학은 지혜의 언어라고. 지혜와 판단 그게 철학에서 나오는 건데 그 공부가 말하자면 인문학이라, 사회학은 동시에 인문학을 해야 된다고, 사회학은 사회적 사실이고 인문학은 학자에게 가장 중요한 글 쓰기고, 학자는 딴 게 아니라고 판사가 판결로서 말하듯이 학자는 글로써 말하는 거야.

VI. 나오며

학자 송복의 인생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다른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서구의 학문을 하는 사회학자이며 다른 한 면은 동양적 사고에 바탕을 두고 늘 조화와 화합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런데 두 면이 만나면 실체라는 하나의 존재가 탄생한다. 경계에서 사회학을 발전시킨 송복 교수의 인생이 뛰어난 것은 인생 경로를 '우연'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의 노력을 감추는 겸손함에 있었다. 대답 속에서 우연히 일어난 것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였다. 한학자의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나, 일제 강점기 거의 끝 무렵 학교에 다녔던 사실과 한글을 배우게 된 과정,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기에 접했던 새로 운 사실들은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큰 소용돌이 속에서 이뤄졌다. 그 속에서 송복의 노력은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괴와 땀을 흘리도록 만들었다. 전공 선택 과정, 대학 입학과 교과목 수강

과정, 사상계에서 기자 생활, 언론인 생활, 잡지 <청맥> 발간과 이후, 신문대학원, 하와이 유학, 연세대학교에서의 교수로서 생활과 정치학 박사 과정 진학 등 그에게 있어서 치열하지 않은 삶은 없었다. 그의 삶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으며 자신의 학문적 호기심을 채울 수 있는 것을 쉼 없이 찾아다니는 과정으로 점철되어 있다. 중간중간 그가 살아 온 경로로 향하는 선택의 과정에서 우연성이 개입되어 있었지만, 송복 교수는 피와 땀을 흘리며 노력하다 기회가 왔을 때 곧바로 그 기회를 잡을 준비가 늘 되어 있었다.

그의 학문의 세계는 동양적인 인식이 그 깊은 곳에 세워져 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현상을 보고 실체를 찾아다니는 사회학을 시도했다. 실체를 파악하고 팩트를 찾아낸다. 그리고 그것을 분석한다. 사를 통해서 통찰력을 키우고 문을 통해서 언어를 배우고 문장을 수려하게 한다. 문장에 감동을 불어 넣으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공부에 전념하여, 책과 씨름하며 사회를 분석할 혜안을 계발한다. 이것이 송복 교수가 학자로서 살아온 것이다. 그를 만든 것은 급격하게 변화했던 한국 근현대사의 사회구조와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온 송복 개인의 노력이다.

정통의 길을 걸어 사회학을 체계적으로 특정한 대학에서 배웠다면 현재의 송복이 있을 수 있었을까? 한학에 능하고 정치학을 전공하고 언론을 전공하고 언론 현장에서 뛰었던 송복, 논설위원이 되고 싶었으나 결국 사회학자가 되었던 송복의 글에는 늘 동양의 소재가 나타난다. 동시에 늘 서구적 사회과학의 방법이 나타난다. 실증적이고 실체를 파헤치는 가치 중립 지향의 사회학이 그것이다. 이 둘이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송복 교수의 글에서, 강의에서, 강연에서, 대화에서 나타난다. 처음 들었을 때 상대는 혼란스럽다. 그렇지만 송복을 이해하면 그의 강연은 철저하게 도구적 합리성에 기반하고 동양의 화려한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학문을 전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의 글은 누구나 알 수 있고 쉽다. 그러나 동시에 정말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의 글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경계에 서서 늘 옛것을 가지고 새로움에 도전한 송복 교수의 용광로 같은 학문의 세계는 시대의 산물이면서 동시에 치열하게 살아온 한 개인의 산물이다.

참고문헌

- 송복. 1990. 『한국사회의 갈등구조』. 경문사.
- 송복. 1991. 『조직과권력』. 나남.
- 채오병. 2009. “사건사의 인식론과 방법론.” 『사회와 역사』 83: 157-185.

문상석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UT at Austin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적인 사회학을 추구하며 지역과 정체성 그리고 글로벌리제이션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심이 있다. 저서로는 『박정희 동원체제의 잔재와 현대 한국 시민사회 형성』이 있다.

E-mail: ssmoon@kangwon.ac.kr

(2023.09.28.접수; 2023.10.18.수정; 2023.10.18.채택)

DOI: <https://doi.org/10.17207/jstc.2023.9.26.3.5>

A Scholar on the Edge: Song Bok, a Sociologist Who Built a Melting Pot of Knowledge Based on Oriental Thoughts

Moon, Sang-Seok. Professor,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contingency, political science, sociology, Journalism, methodology for social sciences, furnace, furnace, essence

[Abstract]

This study seeks to explain through 'coincidence' the academic world of Professor Song Bok, who took Chinese studies and traditional Korean thoughts as the basis of learning, worked as a journalist in the field, lived as a scholar who majored in political science, and lived his entire life as a sociologist on the border. The academic world of Song Bok, professor emeritus of sociology at Yonsei University and a former journalist who enjoyed Chinese studies and had a background in political science, is covered from the perspective of knowledge sociology, which is based on studies that are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real world he experienced. Born into a family of Chinese scholars, Chinese Studies-friendly environment and home education, college life in Seoul, and experience in the world of thought. The rational thinking based on reality of the military, the experience of magazine <Cheongmaek>, exposure to sociology at the Graduate School of Journalism, studying abroad at the University of Hawaii and experiencing English, comparing Shakespeare and Chinese Old Literature (GomunJinbo), and realizing that he could not help but enjoy Chinese studies, gave him various experiences in sociology. It was a series of

coincidental events that led to. In social science, contingency is suitable for explaining long-term pathways where causal relationships are difficult to operate. As a sociologist, Professor Song Bok's experiences of various events leading up to his life were connected by chance, but within each event was the blood and sweat invested by the human being Song Bok. Chinese studies, English, his career as a journalist, political science, and his way of pursuing studies, which are explained through causal relationships, were the products of his efforts, and each of these events can be treated through a path explanation called coincidence.

Song Bok, who entered the journalism industry with experience in sociology and recognition for his writing skills, was still distant from sociology. In the meantime, while he was experiencing the field of journalism, the launch of the magazine, <Cheongmaek> and a series of events that occurred led him to begin the academic world of sociology in earnest. The vortex of modernization and political change in Korean society led Song Bok, who had experience in a variety of academic fields, to start out as a sociologist. The connection with Yonsei University, which he came across by chance, gave him a variety of experiences and although he chose a different path in life than other professors, it was a valuable gift to him, preventing him from falling into a path other than that of a scholar. Professor Song Bok was able to achieve freedom as a scholar at Yonsei University. Because he did not work at a school, he lived as the master of his time, as the master of writing by writing what he wanted without pressure, and as he did not conduct research to raise research funds, he lived free from money. Professor Song Bok was able to conduct research in search of reality without being pressured by social structure, and as a result, he was able to explain Korean society in terms of inequality, class, and organization. This study is a study to find the roots and processes of

Song Bok, who has followed a single path of explaining social phenomena through Korean sociology by finding Eastern ideas that form the deep structure of Korean society based on Western academic methodology.